차 례

제 1 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여

량강도 삼지연군의 소백수골은 1년치고 흰눈이 허리를 넘게 쌓여있는 때가 더 많은 백두밀림의 깊은 골짜기의 하나입니다.

조국해방을 위한 싸움을 벌리시던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직은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못했던 소백수골에 백두산밀영을 꾸리시고 여기에 사령부를 정하시였습니다.

그후 밀영에는 사령부귀틀집과 비슷한 모양의 자그마한 귀틀집 한채가 더 생겨나게 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소백수가 흐르고 뒤에는 **정일**봉이 높이 솟아있는 집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바로 백두산밀영의 이 귀틀집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이때는 오래동안 일제를 쳐부시는 무장투쟁을 벌려오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놈들을 마지막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가시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것은 멀지 않아 해방될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찬란한 해돋

> **정일**봉의 높이는 1 798m로서 이 일대 봉우리들가운데서 주봉을 이룬다.
>
> 백두산밀영에는
>
> -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25(1936)년 9월 조국에서의 첫밤을 보내신 사령부천막자리와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계시던 사령부귀틀집
> -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귀틀집
> - 김정숙어머님과 유격대원들이 쓴 수십대의 구호나무
> - 사령부와 고향집을 호위하던 경위대원실
> - 그밖에 재봉소, 비서처, 차단소, 대원실, 박우물, 껍질벗긴 나무들, 우등불자리 등 많은 혁명유적, 유물들
> - 송시 《**광명성찬가**》를 새긴 기념비가 있다.

이였으며 우리 민족이 반만년 력사에서 또 한분의 위대한 장군을 맞이한 크나큰 경사였습니다.

전날까지 사납게 불던 눈바람도 이날에는 잦아들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자제분께서 탄생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밀영에 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모두 떨쳐나 환호성을 올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때 나의 동무들은 백두산에서 또 한사람의 장군감이 태여났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대원들은 격정을 누를길 없어 주변의 나무들에 글발들을 새기였습니다.

그중에는 이런 글발도 있었습니다.

《아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린다》

그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장차 **김일성**대원수님의 뒤를 이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쓴 구호문헌

조선의 앞날을 밝게 비쳐주는 미래의 태양이 되시라는 뜻을 담아 광명성으로 높이 불렀던것입니다.

통신원들을 통하여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서는 매일과 같이 백두산밀영으로 축하의 인사를 보내여왔습니다.

국내공작에 파견되는 대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인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각지의 수림속나무들에 구호들을 새기였습니다.

인민들도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전해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의 시작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정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가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아버님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인민들에게 가장 옳바른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였으며 갓 세워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어려운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의 영예를 떨치시였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이 땅우에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주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앞길도 환히 밝혀주시고 그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적극 도와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은 한평생 인민을 선생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뜨

겁게 사랑하시였으며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참으로 **김일성**대원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령도자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김정숙어머님은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이시였으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일찍부터 **김일성**대원수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시였으며 대원수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날아오는 총탄도 서슴없이 막아나서시였습니다.

특히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그 아무리 어려운 과업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시는 성품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일제놈들을 때려부시는 수많은 전투들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시여 백두의 녀장군으로 이름떨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자신이 춥고 배고픈 대신 동지들이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동지들을 위해서만 사시였으며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인민을 잘살게 하시려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뜻을 받드시느라 한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시였습니다.

참으로 김정숙어머님은 **김일성**대원수님의 가장 귀중하고 친근한 동지이시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일가분들은 모두가 대를 이어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들이시며 혁명가들이시였습니다.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싸우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할머님이신 강반석선생님은 조선혁명의 승리와 녀성들의 참된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작은할아버님이신 김형권선생님과 삼촌이신 김철주선생님은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찍부터 혁명투쟁에 참가하시여 적들에게 희생되는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싸우시였습니다.

외할아버님이신 김춘산선생님과 외삼촌들이신 김기준, 김기송선생님들도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한몸바쳐 싸우시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위대한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어머님의 교양을 받으시면서 일찍부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습니다.

제 2 과

첫 혁명력사연구소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때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 4학년에 편입하시였습니다.

그때 학원의 나어린 원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안전한 곳에 소개되여 공부를 계속하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원생활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여 원아들의 생활에서 빈구석을 찾게 되시였습니다.

원아들은 오후복습시간이 끝나면 교실에 둘러앉아서 한참씩 이야기판을 펼쳐놓군 하였는데 그것은 거의나 다른 나라의 동화나 우화가 아니면 외국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였습니다.

어느날 오후 한 원아가 아무런 필요도 없는 옛말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원아에게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도 재미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재미가 없어도 그런 이야기밖에 별로 들을것이 없어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어느날 복습시간이 끝난 다음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늘은 자신께서 옛말을 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처음있는 일이여서 원아들은 환성을 올리며 좋아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감쪽같이 압록강을 건너와 일제놈들을 벼락같이 들이쳐 다른 나라들에까지 소문이 크게 났던 전투이야기였습니다.

> **만경대혁명학원**
>
>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영용하게 싸우다 희생된 혁명전사들의 자녀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혁명가유자녀교육기관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주체36(1947)년 10월 12일에 창립되였다.
>
>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다.

원아들은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귀를 기울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야기를 끝마치시자 원아들은 옛말이 아니라 진짜이야기구나 하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김정일**대원수님께 이야기를 해달라고 청을 드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들으신 이야기들과 함께 유격대원들이 들려주던 전투이야기들을 재미나게 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급에는 이야기모임시간이라는 새 일과가 생겨나게 되였습니다. 다른 학급의 원아들까지 이 시간이면 슬금슬금 뒤자리에 들어와앉군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에 대한 이

야기를 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에는 **김일성**대원수님처럼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의 크나큰 지지와 사랑을 받은 그런 위인은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활동력사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을 자나깨나 우러르면서도 대원수님의 혁명활동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있었던 원아들은 깊은 감동에 잠기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원아들속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라배우려는 열망이 점점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느끼시고 더없이 기뻐하시였습니다.

하루일과가 끝난 깊은 밤이면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실에 남으시여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책들을 보시며 이야기모임에 출연할 준비를 하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움을 받으신 책은 최고사령부에서 가지고오신 《**김일성**장군의 략전》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때로는 학급학생들에게 략전을 그대로 읽어도 주시고 내용을 해설해주기도 하시였습니다. 몇동무들에게는 책을 돌려보며 연구하여 발표하게도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조직할것을 발기하시였습니다.

소년단지도원선생님을 찾아가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원에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배우는 학생들의 연구소조를 무었으면 해서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일성**장군의 략전》이라고 쓴 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도원선생님이 그 책을 다 번져볼 때까지 기다리시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 책을 기본교재로 삼아서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조직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도원선생님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벌써 그처럼 높은 뜻을 지니고계시는데 대하여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참 훌륭한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42(1953)년 2월 10일 학급에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무으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의 목적은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대원수님께 충직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었습니다.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집체적으로 연구학습하는 첫 혁명력사연구소조였습니다.

다른 학과목소조들과는 달리 여기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다 망라되였습니다.

이날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의 첫 성원의 영예를 지니게 된 원아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 학습하고 열심히 따라배울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연구소조의 첫 사업으로 《**김일성**장군의 략전》에 대한 독보를 진행하시였습니다.

략전을 읽어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독보를 끝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장군님을 잘 따라배워야 합니다. 나도 앞으로 장군님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김일성**장군의 략전〉학습을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모두 〈**김일성**장군의 략전〉을 깊이 학습하여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됩시다.》

이렇게 첫 연구소조를 학급에 조직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른 학급들에서도 소조를 내오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곧 학원의 모든 학급들에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가 무어져 활동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전쟁의 불길속에서 뭇고 지도하신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학생들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충직한 아들딸로 키우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략전 — 주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들, 이름있는 활동가들의 사회적경력과 활동내용을 추려서 쓴 전기.

생애와 활동가운데서 가장 의의있고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집약적으로 쓴다.

제 3 과

동해천리길을 걸으시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43(1954)년 여름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동해안일대를 돌아보게 되시였습니다. 일찍부터 아버님을 모시고 여러곳을 다녀보시였지만 이때처럼 한번에 많은 곳을 돌아보시기는 처음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길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상처입은 조국의 모습을 목격하시였습니다.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는 우리 나라의 모든 곳을 참혹하게 파괴하였습니다. 미제는 그가운데서도 큰 공장들이 집중되여있는 함경남북도일대를 더욱더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조국의 참상을 보시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가슴이 쓰리시였습니다. 아픔이 크실수록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천백배로 북받쳐오르시였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무참히 파괴된 청진시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시고 바다가에 이르시여 어두운 안색으로 먼 바다쪽을 바라보고계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다바람이 불면서 모래먼지가 날려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급히 아버님앞으로 달려가 모래바람을 막아드리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의 어깨우에 앉은 모래를 털어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한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다. 찬바람 더운 바람 다 가리고서야 어떻게 혁명을 하겠느냐. 나는 이때까지 엄동설한에 몸을 녹일 사이가 없었고 삼복띠약볕에 그늘을 찾을 새도 없었다.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할것 같다.

혁명을 하자니 한평생 군인으로 살수밖에 없구나.》

총포성은 멎었지만 미국놈과의 싸움은 계속되고있으며 맨손으로 재더미를 헤치고 일떠서야 하는 복구건설도 또 한차례의 준엄한 싸움이라는것, 그러니 마음의 군복을 벗을수가 없다는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뜻을 가슴깊이 새기시며 아버님께 《나도 앞으로 일생 군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엄숙히 다짐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결심이 대견하시여 아드님의 어깨를 뜻있게 두드려주시였습니다.

청진일대를 여러날 돌아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과 함께 수성천가에서 잠시 휴식하시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자그마한 뙈기논들이 있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얼마나 흰쌀밥이 그리웠으면 이런 모래밭에 논을 풀었겠는가고 하시면서 물이 새나가는 논두렁짬에 몸소 흙매질을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아버님의 일손을 도우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에게 이 고장 농민들에게 흰쌀밥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것 같은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양수기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올리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옳다고 긍정해주시면서 공장으로 가자고, 거기 가야 모든 문제들이 풀릴수 있다고 하시며 또다시 길을 떠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성진제강소(당시)를 돌아보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전기로들을 살려낸 이 공장 로동계급은 그때 쇠물을 뽑아내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쏟아지는 쇠물을 보시며 너무도 기쁘시여 여기서는 벌써 로들을 다 복구하고 쇠물을 뽑고있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습니다.

하지만 공장복구는 시작에 불과하였으며 해야 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느 한 직장에 들리시였을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폭격에 못쓰게 된 2000t프레스가 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로동자들에게 이 기계를 빨리 복구해야 다른 공장에 필요한 기계도 만들어내고 복구건설도 잘할수 있을것이 아닌가고 하시며 프레스를 살릴수 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로동자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대답을 올리였습니다.

곁에 있던 한 일군이 자재도 자금도 없는 지금 형편에서 어떻게 이 큰 기계를 살릴수 있는가, 아무래도 외국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걱정하였습니다.

이때 나이지긋한 한 로동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걱정마시우다. 전쟁을 이긴 우리가 이까짓 기계 하나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공장에 오시여 지배인에게 로동자들의 생활부터 돌봐주라고 하시였다니 그 고마움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하늘같은 그 은덕에 보답하지 못하면야 우린 로동계급이라고 할수 없지요. 우린 죽으나사나 우리 힘으로 살려내고야말

테니 두고보시우.》

그의 말에 로동자들이 한결같이 호응해나섰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는 한 복구건설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시였습니다.

그 감동을 안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기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파괴된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그 공장 지배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공장을 복구하려면 우선 로동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하오. 공장은 로동자들이 복구하고 동무는 그들의 생활을 복구하시오.〉

정말 뜻깊은 말씀이시였다. 그곳 로동자들은 아버님의 말씀을 전해듣고 모두 울면서 원수님께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나는 인민을 위하시는 아버님의 마음과 원수님을 받드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이번처럼 똑똑히 깨달은 때가 없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걸으신 동해천리길은 한생을 군인으로 싸워나가실 결심을 다지신 맹세의 길이였으며 **김일성**대원수님을 받드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다시금 확신하신 뜻깊은 길이였습니다.

제 4 과

가을걷이에 참가하시여

주체43(1954)년 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로동자, 사무원, 청년학생들모두가 농촌지원사업에 떨쳐나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가을걷이에 참가하시기 위하여 어느 한 농장으로 나가시였습니다.

뻐스에서 내리자 몇몇 학생들은 들뜬 기분에 사로잡혀 장난에

만 열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모이게 하시고 농촌에 나온 목적을 말씀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오늘 여기에 들놀이를 온것이 아니라 **김일성**대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벼가을을 도와주러 왔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이 오늘 농촌에 나온것은 비단 농민들의 바쁜 일손을 돕는데만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보람찬 로동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농촌실정도 알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과 결합시켜 새로운 농산지식을 배우는데 있다고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그 말씀은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농촌지원사업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가해야 하는가 하는 높은 자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벼가을이 시작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숭고한 모범으로 학생들이 가을걷이를 주인답게 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작업준비를 갖추고 누구보다먼저 논판에 들어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새 학생들을 뒤떨구고 씽씽 낫질을 하시며 앞서나가시였습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대원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남보다 2배나 더 되는 몫을 맡으시고도 선참으로 논뚝에 올라서시였습니다.

쉴참이 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농촌일이 처음이다보니 힘들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기회에 자신의 사상과 의지를 단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휴식을 끝낸 학생들앞에는 물이 질벅하고 발이 쑥쑥 빠지는 논판이 차례졌습니다.

학생들은 일자리를 다른 논판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

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농장일군도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김정일**대원수님께 마른 논도 많은데 그리로 옮겨가자고 말씀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다고 물러서면 마을농민들이나 다른 지원자들이 와서 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물이 고인 논에 들어선김에 벼를 제꺽 베야 하겠다고 하시며 벼포기를 휘여잡으시고 벼를 베기 시작하시였습니다.

무어라 말할수 없는 크나큰 충격에 사로잡힌 학생들은 모두 논판에 들어서서 벼를 베여나갔습니다.

이른 저녁때가 되여 학생들은 맡은 논판의 벼를 말끔히 베여눕혔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벼포기들이 물에 잠겨 못쓰게 될것을 념려하시여 벼베기가 끝나자 뒤이어 벼단묶기와 벼단나르기작업까지 조직하시였습니다.

물이 질벅거리는 논판에서 한아름씩 되는 벼단을 나르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무거운 벼단을 2～3단씩 나르시였습니다.

이때 한 학생은 벼단을 나르는데만 정신이 팔려 벼이삭을 흘리는것도 모르고 일하고있었습니다.

벼단을 나르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벼이삭이 어떻게 키워진것인지 알고있습니까? 벼 한알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힘들게 일하는 농민들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벼이삭을 흘릴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주인답게 일하는 기풍도 배워야 합니다.

그다음부터 학생들은 벼단을 더 정히 다루었을뿐아니라 벼단을

다 나른 다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줄로 쭉 늘어서서 이삭주이까지 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하루일을 마친 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로동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시는 대원수님의 숭고한 풍모를 따라배울 결의가 한껏 차넘치였습니다.

제 5 과
뜻깊은 참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서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주체44(1955)년 4월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만경대와 칠골참관을 단위원회계획에 넣으시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분단별로 **김일성**대원수님의 어린시절에 대한 이야기모임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참관로정도 알려주게 하시였습니다.

참관을 떠나기 전날에는 만경대와 칠골혁명사적지참관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만경대와 칠골참관을 **김일성**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참관을 통하여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떤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어떻게 어린시절을 보내시였는가를 잘 알아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다음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만경대와 칠골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몇몇 학생들과 함께 저택정원의 향나무를 정성껏 떠가지고 참관의 길에 오르시였습니다.

먼저 칠골에 이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할머님이신 강반석선생님께서 탄생하시고 한때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을 보내신 뜻깊은 자취들이 어려있는 초가집을 오래도록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여기에 저택정원에서 떠온 향나무를 심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무심을 자리를 몸소 잡아주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을 받드는 우리 마음처럼 영원히 시들지 않게 잘 심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식수가 끝난 후 학생들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나오시여 공부하시던 창덕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창덕학교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나라찾을 큰뜻을 키워가신 유서깊은 곳인것만큼 이곳에는 마땅히 대원수님의 동상도 모셔야 하며 학교주변도 더 잘 꾸려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우리 소년단원들뿐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배우는 혁명의 배움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칠골혁명사적지참관을 마치신

> **창덕학교**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12(1923)년 4월부터 주체14(1925)년 1월까지 공부하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워가신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든 학교이다.
>
>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1동에 있다.
>
> 창덕학교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께서 1908년에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의 말과 글, 력사와 지리를 배워주고 애국사상을 심어주시려고 세우신 학교였다.
>
> 오늘 창덕학교에는 학생시절의 **김일성**대원수님을 형상한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이끄시고 만경대로 향하시였습니다.

만경대에 도착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과 함께 만경대 고향집을 돌아보신 다음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할머님이신 강반석선생님의 묘를 찾아 인사를 드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만경봉으로 오르시는 길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참으로 훌륭한분들이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해방후 자신께서 어머님을 모시고 만경대에 오실 때마다 어머님께서 어서 커서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뜻을 이어 훌륭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는 뜻깊은 이야기를 하시였습니다.

이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학습터와 씨름터를 돌아보시였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 학습터에서 원쑤 왜놈을 쳐부시고 나라를 찾으실 굳은 결의를 다지군 하시였으며 그날의 결심을 기어이 실현하시여 우리들에게 행복한 락원을 마련하여주시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우리는 오늘의 이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학생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워 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자라날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진행된 만경대와 칠골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은 학생들속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배우며 대원수님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혁명전통—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령도밑에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되였으며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할 전통.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그 대를 이

어주는 피줄기를 말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전통이다.

제 6 과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빛내이자

전후 우리 나라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의 나쁜 영향으로 하여 자기의것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것을 덮어놓고 좋게 보며 본따려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시였습니다.

주체44(1955)년 9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학생에게 우리의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이날 그 학생은 밤늦도록 교실에서 학교벽보전람회에 내놓을 벽보를 그리고있었습니다.

학교를 돌아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실로 들어오시여 그 학생이 그려놓은 벽보앞으로 다가가시였습니다.

벽보에는 다른 나라 수도의 풍경이 그려져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창문가로 가시였습니다.

그 학생은 곧 자기 그림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였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 학생이 의아해하는것을 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창밖을 좀 내다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은 이밤도 잠들지 않고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더미속에서 일떠세운 영웅도시 평양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수도와 비길수 있겠는가고, 남의 나라와 남의 수도를 쳐다보며 동경하는것도

다 애국심이 없고 제정신을 잃은 표현이라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되자면 무엇보다도 조국을 잘 알아야 하고 조국을 사랑하여야 한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우리의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의것에 대하여 긍지를 느낄줄 알아야 한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림을 하나 그려도 이런 사상으로, 교양적가치가 있게 그려야지 개인의 재간이나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타일러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친히 물바께쯔의 물을 새로 갈아오시면서 그에게 물만 새로 갈지 말고 너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생각도 새로 갈아야겠어, 그래야 새 벽보가 되겠다고 웃으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새로운 벽보를 그릴 준비를 해놓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벽보의 제호를 소년단원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홰불》로 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벽보의 주화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말해주는 백두산과 홰불을 그리며 벽보의 아래쪽에는 웅장하게 건설되는 평양의 모습을 앉히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손수 붓을 드시고 붉은색으로 《홰불》이라는 벽보의 제호를 힘있게 써주시였습니다.

학생은 격동된 마음으로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벽보는 훌륭히 완성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어느날 한 생물소조원에게 우리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날 펭긴새에 대한 자료를 알려고 하는

그에게 어째서 제비나 뻐꾸기, 종달새 같은 우리 나라에 흔한 새를 연구하지 않고 펭긴새와 같은 다른 나라의 동물을 연구하는가고 물어보시였습니다.

학생은 우리 나라에 있는 새나 연구해서야 생물소조원의 위신이 서겠는가 하는 자기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학생의 말에 의하면 생물소조에서는 주로 다른 나라의 동물이나 식물을 골라 매주 한번씩 연구발표모임을 한다는것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동안 그 학생을 바라보시다가 그렇다면 한가지 물어보자고 하시며 제비 한마리가 하루에 나쁜 벌레를 몇마리나 잡아먹는지 아느냐고 질문하시였습니다.

학생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제비 한마리가 한시간에 14마리의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시며 제비가 하루에 벌레를 잡아먹는 시간은 보통 10시간쯤 되는데 우리 나라에 천만마리의 제비가 있다면 몇마리의 벌레를 없애치우겠는가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학생은 얼른 속셈을 해보더니 《14억마리!》 하고 놀라와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있는 이런 리로운 새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나라의 동물을 연구하겠다니 우스운 노릇이 아닌가고 하시며 그래 이래도 우리 나라 동식물을 연구하는것이 생물소조원의 체면이 깎이는 일로 되는가고 타이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력사를 배우건 지리를 배우건 생물을 배우건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남극에 가서 혁명을 하겠는가, 열대지방에 가서 건설을 하겠는가, 우리는 살아도 조선에서 살고 혁명을 해도 건설을 해도 조선에서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것, 조선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새들을 연구하는데 참고

가 되게 여러가지 책들과 자료들까지 골라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긴 그 학생은 그후 제비에 대한 연구를 잘하여 소조모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학교생물소조원들은 우리 나라의 유익한 새들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려 신문에 사진과 함께 소개되여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러한 활동에 의하여 전후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학생청소년들은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빛내이는 조선의 참된 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종파분자 — 자기 개인과 자기 파의 리익을 위하여 수령의 령도를 받들지 않고 통일단결을 파괴하는자.

제 7 과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전후의 어려운 나날 우리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허물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10대의 젊은 장군이시였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더욱 높이 우러러모시며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45(1956)년 1월 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노래를 지어부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여러명의 항일혁명투사들이 설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김일성**대원수님의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신 뜻깊은 자리에서

대원수님을 결사옹위할 심정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금처럼 정세가 복잡한 때일수록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같은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노래를 많이 지어부르며 대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세상에 나온지 10년이 되도록 아직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좋은 노래가 더 나오지 못하고 있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하시면서《**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같은 대원수님에 대한 노래를 하나 잘 지어부르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저저마다 찬성해나섰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노래창작사업을 인민군대에서 맡아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시며 인민군대에서는 전쟁시기에도 좋은 노래들을 많이 지었으므로 얼마든지 지을수 있을것이라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인민군대에서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송가창작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지혜를 안겨주시며 송가창작사업을 적극 밀어주시였습니다.

그해 봄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일군을 만나시여 그동안의 송가창작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나쁜 놈들이 방해책동을 계속하고있는 조건에서 송가창작사업을 더는 미룰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군협주단 창작가들에게 힘을 주고 잘 이끌어주면 반드시 훌륭한 노래가 나오리라고 믿는다고 고무하여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또다시 그 일군을 만나시여 송가창작정형에 대하여 깊이 료해하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몇줄 안되는 가사에 담는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송가창작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백두밀림에서 일제와 싸워이겼기때문에 우리 인민이 자기 조국을 가진 떳떳한 민족으로 된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을 불굴의 용사로 키웠고 원쑤들에게는 죽음과 공포를 주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김일성**대원수님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조국통일도 이룩하고 사회주의건설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군협주단에서 창작하는 노래는 철저히 **김일성**대원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감정이 잘 반영된 송가로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마디마디 깊이 새긴 일군은 그길로 창작가들을 찾아갔습니다.

창작가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가사창작방향 그대로 가사를 쓰고 대원수님께서 찾아주신 감정을 담아 곡을 붙여나갔습니다.

마침내 시연회의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연회에 참가한 일부 나쁜 놈들은 《백두의 밀림에서 밝아온 이 아침》이라는 표현을 놓고 트집을 걸었습니다.

놈들은 조선의 아침이 동해에서 밝아오지 어떻게 백두산에서 밝아오는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동서남북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라고 하면서 무슨 노래가 이렇게 빨래줄처럼 긴가, 이것도 노래인가고 시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악보를 주의깊게 보아주시였습니다.

악보를 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나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 노래가사에 내가 생각하고있던 내용이 그대로 잘 반영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특히 **김일성**대원수님을 칭송하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있으며 가사와 곡이 소박하고 친근하게 되였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후렴에서 장군님이라는 표현을 원수님으로 고쳐야 노래내용이 제목과 일치될수 있고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명확히 구별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주체42(1953)년 2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주체81(1992)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받으시였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노래가 늦게 나온것만 해도 가슴아픈 일인데 이 노래를 두고 시비하는자들이 있다니 정말 격분하지 않을수 없다고 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자들이 한 말을 따져보면 결코 세상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음흉한 목적이 있는 소리이다, 그자들은 혁명전통을 말살하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시였습니다.

이어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울려퍼지면 그자들의 면상을 답새기는것과 같다고 힘있게 말씀하시며 용기백배하여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고무해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는 인민군대가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10돐을 경축하여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신 모란봉극장의 공연무대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울려퍼지게 되였습니다.

첫 공연이 진행된 날 항일투사선생님들은 흥분을 금치 못해하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편의 노래로 종파놈들의 뒤통수를 답새기고

우리 수령님을 받들어올리셨다고, 그이께서 계시는 한 우리 나라에서 태양이 꺼지는것과 같은 일은 영원히 없을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찌기 백두산시절부터 **김정일**대원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그들의 확고한 신념에서 우러나온 참으로 뜻이 깊은 말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송가를 창작하도록 하시여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충실성의 마음과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깊이 심어주시였습니다.

시연 — 연극, 춤, 음악 등의 예술작품을 일반공연에 앞서 전문가들의 집체적인 평가를 받기 위하여 무대우에 시험적으로 올리는것.

송가 — 위대한분이나 인물 또는 력사적의의를 가진 사건에 대한 칭송의 감정을 표현한 시가 또는 그런 음악작품.

제 8 과
첫 혁명전적지답사단을 이끄시고

백두산지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신 혁명활동사적이 집중되여있는 유서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조국이 해방된지 10년이 넘도록 이곳은 인민들을 교양할수 있게 꾸려지지 못하였으며 이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도 진행되지 않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이곳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을 진행할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을 무으시고 답사준비를 다그치시였습니다.

소년단모임을 가지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답사기간에 하여야 할 사업내용을 토의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떠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백두산지구답사의 목적을 밝혀주시였습니다.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따라 항일유격대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싸워서 오늘의 승리를 가져왔는가 하는것을 배우는데 이번 답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준비가 면밀히 갖추어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45(1956)년 6월 5일 답사단을 이끄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의 길에 오르시였습니다.

답사단은 혜산을 거쳐 6월 8일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에 도착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저 답사단성원들과 함께 가림천기슭에 모셔진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 정중히 인사를 드리시고 다음사업을 시작하시였습니다.

보천보혁명전적지답사과정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보천보전투와 관련한 자료들이 잘 준비되여있지 못한데 대하여 깊이 헤아리시고 일군들에게 보천보전투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찾아온 일군에게 혁명전적지답사로정을 앞으로는 백두산마루까지 련결시켜놓을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습니다.

보천보답사를 끝낸 답사단은 삼지연을 향해 떠났습니다.

삼지연못가에 이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셨던 그날 삼지연에서 휴식하시면서 삼지연의 맑은 물을 떠마시였는데 조국의 물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두고두고 잊을수 없어하시던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이윽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저 멀리 흰눈을 이고 거연히 솟은 백두산을 바라보시며 백두산은 자신의 고향이라고 하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혁명의 홰불을 높이 지펴올리신 백두산은 우리 혁명의 력사를 전하며 길이길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답사단은 이어 삼지연못가를 떠나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하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적들의 삼엄한 경계진을 뚫고 대낮에 행군해가신 《갑무경비도로》를 걸으시면서 대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령활한 지략을 가슴깊이 새기시였습니다.

그날 밤 답사단성원들은 삼지연림산마을에서 류숙하였습니다.

다음날의 답사로정은 삼지연림산마을을 떠나 포태리를 거쳐 리명수에 이르는 60여리 험한 산길을 헤쳐야 하는 어려운 행군길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출발에 앞서 답사단성원들에게 우리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실지 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리명수까지 행군을 하게 된다고 행군목적을 밝혀주시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한명의 락오자도 없이 행군해갈데 대하여 호소하시였습니다.

대렬이 출발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줄곧 앞장에서 걸으시며 대오를 이끄시였습니다.

힘들어하는 한 학생의 배낭을 몸소 메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으며 포태천기슭에 이르시여서는 팔소매를 걷어올리시고 손수 밥도 지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때 답사단성원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뒤를 이어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밥도 자기 손으로 지어먹으면서 행군을 할것이라고, 혁명전적지답사의 첫 행군길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영예와 자랑은 참으로 크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리명수에 도착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답사단성원들과 함께

림산마을의 수수한 귀틀집에 허물없이 숙소를 정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로동자들의 합숙식당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였습니다.

리명수의 밤은 깊어갔으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답사단성원들과 함께 리명수폭포의 장쾌한 소리를 들으시며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학생들에게 지난날 보천보로 진군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도 조국의 물소리를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 나라는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다, 우리는 정세가 긴장하고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필승의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답사단성원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원수님께서 어찌하여 혁명이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여기 혁명전적지답사를 발기하시고 자기들을 이끌어오시였는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무신 집(리명수혁명사적지)

답사를 끝마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행군하면서 보천보와 삼지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였습니다.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느끼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량강도혁명전적지를 답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답사단성원들모두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빛내여나가며 자신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로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는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길은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10대의 시절에 처음으로 열어주신 뜻깊은 길입니다.

제 9 과
보조분단지도원제

주체45(1956)년 12월 조선민주청년동맹에 가맹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청사업을 힘있게 이끄시면서 소년단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그때 소년단사업은 발전하는 현실에 비하여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조직생활을 맡아 지도하게 된 분단지도원선생님들은 교수준비와 개별학습지도에 시간을 바치고나면 그들과 사업할새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을 헤아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청의

믿음직한 교대자인 소년단조직들에 대한 민청의 지도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도를 구상하시였습니다.

주체46(1957)년 겨울방학기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청원들을 소년단분단들에 내려보내여 소년단원들의 학습과 과외생활에 대한 지도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게 하시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상급학년민청원들을 소년단사업에 보조적인 지도력량으로 끌어들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였습니다.

> **조선민주청년동맹**
>
>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나라 청년들의 대중단체였다.
>
> 1946년 1월 17일에 창립되였다. 창립당시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였다.
>
> 1951년 1월 17일 북남조선의 민주청년동맹이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통합되였다.
>
> 1964년 5월 12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칭되였으며 1996년 1월 19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로부터 이해 2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상급학년의 준비된 민청원들로 분단지도원들의 사업을 도와 소년단분단을 지도하게 하는 보조분단지도원제를 내오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보조분단지도원제를 내오는것은 소년단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조분단지도원으로 파견된 민청원들은 분단지도원들과 짜고들어 소년단원들의 과외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보조분단지도원들이 자기 사업을 바로하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보조분단지도원들에게 소년단원들과 담화하는 방법, 소년단회의를 지도하는 방법을 배워주기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분단사업계획서를 세워주기도 하시였습니다.

어느 하루 보조분단지도원들의 사업을 알아보시려고 한 분단에 들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기네 보조분단지도원형님이 큰소리만 친다고 하는 소년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였습니다.

곧 그를 만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축구경기심판법을 알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뜻밖의 물으심에 그는 잘 모른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고치는 법은 아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똑똑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장난이 심한 애들을 그저 이것으로 다룰셈이군 하고 주먹을 내흔들어보이시며 크게 웃으시였습니다.

그 동무는 얼굴을 붉히며 뒤통수만 긁적거렸습니다.

그러는 그에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보물통과 빈통》에 대한 우화를 들려주시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것은 하나의 우화이지만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그는 그후 소년단원들과의 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을 꾸준히 배우며 사업에 열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소년단원들은 그를 친형처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조분단지도원들의 역할이 높아지자 학교는 더욱 들끓었습니다.

소년단조직은 생기발랄하고 힘있는 산 조직으로 움직이고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조직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자각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새롭게 내놓으신 보조분단지도원제는 소년단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민청원들을 능력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준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제 10 과

장산에 오르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은 전후 3～4년동안에 전쟁의 피해를 가시고 대원수님께서 지펴주신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고있었습니다.

이러한 벅찬 나날이 흐르던 주체46(1957)년 3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모든 산을 푸른 숲으로 우거지게 할 구상을 안으시고 학생들과 함께 장산에 오르시게 되였습니다.

이날 아침 장산에 가려고 모여선 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나무를 심게 된 자랑과 기쁨으로 흥에 겨워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하필이면 왜 이런 추운 날에 나무심으러 가는지 모르겠다고 누구에게라없이 혼자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무는 잠에서 깨여나기 직전과 잠자기에 들어선 직후에 옮겨심어야 죽지 않고 잘 살수 있으며 나무심기에 제일 적당한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때문에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 시민이 떨쳐나서 봄철나무심기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얼마후 대렬은 출발하여 장산기슭에 이르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렬앞으로 나가시여 산으로 곧추 오르시더니 산중턱의 약간 평평한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아무 말씀없이 산등성이를 바라보시였습니다.

장산은 나무 한그루 변변한것이 없는 벌거숭이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윽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전쟁이 끝난지 몇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산에는 나무 한그루 변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당에서는《조국의 산야를 푸르른 락원으로 꾸리자!》라는 구호를 내놓았는데 우리는 이 구호를 받들어나가는데서 앞장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무심기에 앞서 원림관리원이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시범동작을 해보이고는 다른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딴눈을 팔던 몇 동무들은 기술규정을 잘 모르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나무심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주시고 나무심기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세 사람씩 조를 무어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삽을 드시고 구뎅이를 파시였습니다.

석비레가 깔린 땅이여서 여간만 힘들지 않았으며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굳은 땅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조의 일부 학생들은 구뎅이를 대강 파놓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구뎅이를 다 파신 뒤 그들이 파놓은 구뎅이앞으로 다가가시였습니다.

삽으로 너비와 길이를 재여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땅을 얕게 파면 어린 나무모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여 죽고만다고 하시면서 다시 젖은 땅이 나올 때까지 파시였습니다.

조국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힘과 지혜를 다 바치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모범을 따라 학생들은 구뎅이를 하나하나 정성들여 완성해나갔으며 뒤이어 나무심기에 달라붙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산 아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날 나무를 심으신 장산은 평양시 서성구역에 있다.
>
> 이 장산혁명사적지에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신 사적과 군사훈련에 참가하신 사적도 있다.

켠에 내려가시여 한손에는 나무모를 드시고 다른 한어깨에는 부식토가 담긴 가마니를 메고 올라오시였습니다.

같은 조에서 일하는 한 학생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지고오신 나무모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이 처음 골라잡았던 가지가 부러지고 줄기가 상한 나무모였습니다.

그 학생이 나무구실을 못할것 같아 버리고온것이라고 말씀드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정히 웃으시며 이 한그루의 나무모를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품이 들었는지 아는가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공들여 키운 나무모를 하나도 버릴것이 없다고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부러진 나무모의 가지에 부목을 대고 끈으로 동여매신 다음 부식토를 구뎅이에 깔고 정성껏 심으시였습니다.

이때 아래켠쪽에서 나무를 심고있던 학생들이 일손을 멈추고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떠들어대고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새로 나무모를 심어야 할 자리에 서너뼘가량 되는 애솔포기가 한그루 있었는데 그것을 뽑아치우자는 동무들과 뽑지 말아야 한다는 동무들사이에 벌어진 말다툼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까짓 애솔포기 하나가 무엇이 그리 중해서 규정을 어기겠는가고 하며 뽑아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앞으로 다가가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애솔포기를 어루만지시며 전쟁의 불길속에서 뿌리내린 이 나무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차지 않는 애솔포기로 보이지만 이런 나무들이 하나하나 자라서 후날에는 공장도 건설하고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드는데 쓰일 나라의 큰 재부로 되는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우리는 언제나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해방직후 문수봉에 오르시여 몸소 나무를 심으시며 하신 교시를 잊지 말자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심으신 아카시아나무

그러시면서 그때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어야 하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주인된 심정으로 한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이어 나무모를 심어야 이 벌거숭이산에 하루빨리 푸른 옷을 입힐수 있다, 아카시아나무는 어느 나무보다도 잘 죽지 않고 매우 빨리 자라며 잎도 많고 꽃도 향기롭기때문에 우리는 아카시아나무를 한그루라도 더 많이, 더 정성껏 심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이 땅에 꽃피우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절절한 말씀을 가슴깊이 새긴 학생들은 이날 한그루한그루 온갖 정성을 기울이면서 많은 나무들을 심었습

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손길아래 조국의 산과 들은 더 푸르러졌으며 학생들은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고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키울수 있었습니다.

천리마운동 —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 것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계기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일어나면서 발생하였다.

제 11 과

비판속에 참다운 동지적사랑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비판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중학교 높은 학년에서 공부하실 때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호상비판에 대한 한 학생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시였습니다.

그때 학급에는 각별히 친하게 지내며 밀려다니는 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감에 따라 가끔 저들끼리 돌아앉아 수군덕거리며 남의 뒤소리를 하였고 집단규률을 어기는가 하면 지어는 서로 결함을 싸고돌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단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는데 큰 지장을 줄수 있는 싹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급민청초급단체총회에서 그들의 문제를 취급할것을 결심하시고 몇몇 학생들에게

그들을 비판하여 도와줄데 대한 분공을 주시였습니다.

며칠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분공을 준 한 학생을 찾으시여 호상비판할 준비를 어떻게 하였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딱한 낯색으로 우물쭈물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거듭 물으시였을 때에야 그는 지금까지 그들과 우정을 맺어왔는데 비판을 하면 그 우정에 금이 갈것 같아 비판하기 망설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우정을 귀중히 여기겠다는 동무가 왜 생활에서 결함이 있는 동무들을 비판하여 고쳐줄데 대한 분공을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우정에 금이 갈가봐 비판을 꺼린다는데 그런 우정은 참다운 동지적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동무를 사랑한다면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결함이 나타났을 때에 비판을 해서 고쳐주어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심한 자책감으로 고개를 숙이고있는 그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동무들을 비판하는것은 동무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처럼 아프게 생각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무를 도와주고 동무의 잘못을 고쳐주며 동지적단결을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따뜻이 말씀해주시였습니다.

마디마디에 깊은 뜻이 담겨진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김정일**대원수님께 초급단체에서 분공받은대로 호상비판준비를 잘하여 동무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학급민청초급단체총회가 열리였습니다.

총회에서 분공받은 학생은 세 학생들에 대하여 원칙적이고도 날카로운 비판을 하였습니다.

동무들의 호상비판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총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혁명의 시대에 사는 청년들은 마땅히 조직과 집단, 혁명에 리로운 우정만을 인정하

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정에 대한 옳은 인식을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총회후 비판받은 동무들이 비판에 대한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결함을 고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비판을 고깝게 생각하면서 비판한 동무를 멀리하는 한 학생을 가까이 부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비판을 받으면 좀 아프지만 그것을 뜨겁게 받아들일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고쳐나갈수 있다고 말씀해주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때문에 잘못을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동무간의 비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속에 참다운 동지적사랑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비판속에 참다운 동지적사랑이 있다고 하시는 대원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넣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학생들은 비판속에서 참다운 동지적사랑을 꽃피워나갔습니다.

동지 —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

제 12 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며 학생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지만 특히 혁명투쟁

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섭니다.》

주체47(1958)년 2월 8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한 인민군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돌아오시는 그길로 학교민청열성자회의를 여시고 혁명전통학습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습니다.

회의에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현지교시사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번 연설에서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유일한 전통은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이라고 교시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오직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학교민청조직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하루빨리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부터 꾸려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당력사연구실을 꾸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당면하게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따라배우는 독서행군을 벌려야 하겠다고 민청열성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회의후 독서행군을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였습니다.

먼저 혁명전통을 따라배우는 독서행군계획부터 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독서행군계획은 만경대, 보천보, 삼지연, 백두산 등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주요 혁명전

적지, 사적지들을 행군로정으로 하고 매 지점들을 행군해나가는 과정에 혁명전통교양도서들을 읽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벌리는것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내놓으신 독서행군계획이 학교게시판에 발표되였습니다.

이리하여 혁명전통학습의 불길은 온 학교에 타번지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민청초급단체들에서는 독서행군계획에 반영된 혁명전통학습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민청조직들에서는 만경대와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오늘의 조선혁명박물관)에 대한 참관, 항일혁명투사들과의 이야기모임, 영화감상모임과 혁명가요보급, 시랑송모임 등 다양한 형식의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벌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여러가지 형식의 혁명전통학습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면서 혁명전통학습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점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항일의 빛나는 전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똑똑히 깨닫도록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발기하신 혁명전통을 따라배우는 독서행군은 학생청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해 새 교사가 완공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인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꾸리기 위한 투쟁에 학교민청조직의 모든 력량을 동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서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헤아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을 꾸리는 과정을 민청원들의 사상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교민청위원회와 초급단체총회, 소년단

분단총회들을 열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초급단체별로 되는 구체적인 분공을 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모든 학생들이 움직이고 온 학교가 들끓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끝나면 저마다 새로 꾸리는 연구실에 와서 일을 찾아서 하고 여러가지 자재와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관하고 보시던 수십매의 사진자료들과 여러권의 자료집들이 들어있는 두툼한 봉투를 가져오시여 연구실을 꾸리는데 쓰도록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귀중한 자료들을 받아들고 어쩔줄 모르는 학생들과 함께 도록판에 붙일 글자도 따내시고 자료도 배렬하시면서 새벽녘이 될 때까지 일손을 놓지 않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당력사연구실은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개관하는 뜻깊은 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손길이 슴배여있는 연구실안을 돌아보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더없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여선 학생들에게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가장 영광스럽고 신성한 의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당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하여 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는 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심으로써 학생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체계적으로, 정상적으로 학습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거점 — 일정한 활동을 하는데서 근거지로 삼거나 의거하는 중요한 곳.

제 13 과

영웅의 고향집을 찾으시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며 조국을 위하여 한몸바친 영웅들을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주체47(1958)년 4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이끄시고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을 찾으시였습니다.

영웅의 고향집은 순천시 금천동에 있었습니다.

영웅의 고향집마당에 들어서니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리수복영웅의 어머니가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영웅의 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시며 평양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잠시후 어머니와 마주앉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들을 나라에 바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고 걱정하시며 어머니의 갈퀴진 두손을 꼭 쥐여주시였습니다.

> 시
>
> **하나밖에 없는**
> **조국을 위하여**
>
> 리수복
>
>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 생명도 귀중하다
>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 나의 행복—
>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 그렇게 고귀한 생명
> 아름다운 희망
> 위대한 행복이
> 또 어디 있으랴!

어머니는 **김정일**대원수님께 두손을 맡긴채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어도 나라를 위해 한목숨 바쳤으니 더 바랄게 무엇이겠는가고, 나라에서 극진히 돌봐주어 아무 근심걱정없이 지내고있다고 말씀올

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도 그 슬픔을 억세게 누를줄 아는 영웅의 어머니가 고맙게 여겨지시였습니다.

잠시 방안을 둘러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책꽂이에서 영웅이 공부하던 책과 학습장들을 뽑아보시였습니다. 학습장들에는 뚜렷한 글씨로 박아쓴 수학공식들과 《백두산》의 시구절이 적혀있었습니다.

갈피갈피에서 영웅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리수복영웅이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배우러 왔으니 우리 동무들에게 영웅의 지난날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시였습니다.

어머니는 **김정일**대원수님을 한동안 우러르다가 아들이 자라던 시절에 있었던 가지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은덕으로 해방이 되여 우리 글을 배우게 되였다고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던 이야기며 밤을 밝히며 공부하여 언제나 최우등을 하고 민청사업에도 늘 앞장서던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은 감동에 잠겨 어머니의 이야기를 놓침없이 귀담아듣고나서 영웅이 심어놓았다는 바깥의 파일나무밑에 가서 그것을 쳐다보기도 하고 전선으로 떠나던 날 아침 말끔히 쓸어놓았다는 뜨락을 조심히 밟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숭고한 인간애로 영웅의 어머니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영웅의 고향집 안팎을 정이 어린 눈길로 살펴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아들을 대신하여 집을 거두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남먼저 비자루를 드시고 마당을 쓰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울바자도 손질하고 집앞 물도랑을 쳐냈으며 물도 길어왔습니다.

잠간사이에 벌어지는 일앞에 놀란 영웅의 어머니는 줄곧 **김정일**대원수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보통학생 같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한 녀학생을 통하여 마당을 쓰시는분이 **김일성**대원수님의 자제분이시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영웅의 어머니는 허둥지둥 **김정일**대원수님께로 다가가 손에 드신 비자루를 덥석 잡으며《이런 변이라고… 귀한분을 내 집에 모셔놓고 마당을 쓰시게 했으니…》라고 하며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두손을 꼭 감싸잡으시고 우리는 우리 인민의 자랑인 리수복영웅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왔으니 우리를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친자식처럼 여겨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의 집에 왔다가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보고 가야 우리 마음도 기쁘지 않겠는가고 다정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말씀에 영웅의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헤여지시기에 앞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리수복영웅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대신 우리가 어머니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머니의 아들딸들입니다. 저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꿋꿋이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수령님만을 믿고 더 굳세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처럼 자애롭고 인정깊은 위대한분을 우러러 오래도록 서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직하신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에 대한 방문은 학생들속에서 영웅은 결코 순간의 위훈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열렬한 충실성과 애국심을 지니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꾸준히 잘해나갈 때 될수 있다는것을 깊이 알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제 14 과

새롭게 창조하신 속도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서 수도건설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있던 때인 주체47(1958)년 5월초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청년들과 함께 평양시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부재생산전투장에 달려나가시였습니다.

먼저 현장기술지도원부터 만나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시여 학생청년들을 새로운 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그때 기술지도원은 부재생산에서 성과를 올리자면 혼합작업에 몸이 튼튼한 동무들을 배치하는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멘트운반조, 자갈운반조 등으로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하시고 자신께서는 제일 힘들다는 혼합작업을 말아나서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전반적인 작업을 지휘하셔야지 혼합조에 망라되시면 어떻게 하는가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반적인 작업을 살피는데도 혼합조가 제일 좋은 위치라고 하시면서 끝내 그 일을 맡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일솜씨에는 건설자들도 감탄하였습니다. 혼합삽을 어찌도 번개같이 놀리시는지 한틀의 혼합물이 순식간에 이겨지군 하였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알고있는 기술지도원은 대원수님께 좀 쉬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땀흐르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젊은 혈기에 혼합물 몇판 이기고 쉬겠는가고 하시면서 일손을 더욱 다그치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작업총화때였습니다.

기술지도원이 만족한 얼굴로 찾아오더니 기능공들도 세멘트혼합물을 한판 이기는데 15분 걸리는데 이제는 학생들도 그에 거의 따라간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학생들은 흥분하여 술렁거리면서 기능공들이 15분에 한판을 이기면 자기들도 15분에 해야 한다고 하며 이것을 목표로 내걸자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시였습니다.

밝은 얼굴로 학생들을 둘러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기준속도를 목표로 해서야 어떻게 천리마를 타겠습니까? 나는 기준속도를 돌파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예비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 작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자갈!》, 《모래!》 하고 법석 고아대는데 이것은 호흡이 맞지 않고 공간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일들을 치차처럼 맞물려돌아가도록 하고 일을 손에 더욱 익히면 현재의 속도보다 3배는 높일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학생들은 기준속도를 뛰여넘어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시려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생각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혼합속도를 15분이 아니라 5분으로 하자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우리는 천리마시대의 청년들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고 힘차게 호소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신심에 넘쳐 모두 호응하여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작업성과는 날마다 뛰여오르고 작업장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속도창조과정에 학생들이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며 나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어느날 다짐조에서 생산한 부재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부재에 흠집이 생긴것을 보시였습니다. 혼합물을 휘틀에 넣고 다질 때 공기가 채 빠지지 않아 생긴것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술지도원에게 그 부재를 쓸수 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기술지도원은 그만한 흠집은 건설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흠집을 다시한번 주의깊게 살펴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이 부재로 집을 짓고 미장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흠집은 없애버릴수 있겠지만 그런 부재를 생산한 우리의 량심의 흠집은 영원히 지워버릴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속도를 높이면서도 질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인민을 위한 로동의 영예와 보람을 참답게 느낄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로동이 신성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을 실지 행동에 옮기지 못한 자신들을 깊이 뉘우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휴식시간이면 즐거운 오락회도 조직하시였습니다.

학생들과 건설자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두리에 모여 혁명가요도 부르고 군중무용도 하고서는 더욱 성수가 나서 일하였습니다.

어느덧 작업실적은 3배로 뛰여올랐습니다.

이 새로운 속도는 기준속도를 뛰여넘으시려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높은 목표, 빈틈없는 작업조직과 옳바른 이끄심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속도가 창조되자 자재가 딸리는 현상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어느날 세멘트가 떨어지고 곧 도착할 형편이 못된다는것을 아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우리 힘으로 세멘트를 실어다가 오

늘계획을 해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일도 있어야 일한 보람이 더 크다고 하시며 먼저 자동차적재함에 오르시였습니다.

세멘트를 실어오는 도중에 소낙비를 만나게 되였을 때에는 작업복을 벗어 포장지가 뚫어진 세멘트포대우에 씌우시고 자신께서는 포장지가 찢어진 다른 세멘트포대우에 걸터앉으시였습니다.

학생들이 혹시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걱정해드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는 얼굴로 이만한 비에야 감기를 앓겠는가고 하시며 세멘트를 비에 적시면 되살릴수 없는데 이렇게 덮어놓으니 마음이 훈훈하고 오히려 비발이 시원해서 좋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나라의 재산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모범을 따라 서둘러 작업복들을 벗어 세멘트포대우에 덮었습니다.

실로 부재생산전투기간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새로운 작업속도를 창조하시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신 뜻깊은 기간이였으며 학생들을 로동속에서 단련시켜 앞날의 참다운 역군으로 키워주신 의의깊은 나날이였습니다.

부재 — 건설공사를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한 부분을 가공하여 만든 건설재료.

제 15 과

황해제철소를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47(1958)년 9월 전체 당원들에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온 나라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심장에 받아안은 인민들의 불타는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인 10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지식과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실성을 따라배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황해제철소(당시)에 대한 견학을 조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제철소에 도착하시여 학생들과 함께 용광로직장을 돌아보시였습니다.

용해공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쇠물이 이글거리며 끓어번지는 로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함께 온 학생들에게 동무들도 한번씩 다 와보라고 이르시고는 용해공들에게로 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용해공들에게 로의 온도는 얼마이며 하루에 쇠물은 얼마나 뽑는가, 이제 얼마나 더 있어야 출선시간이 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용해공들은 자기들과 허물없이 말씀하시는분이 **김정일**대원수님이시라는것을 알지는 못했으나 그처럼 깍듯이 인사를 하시고 고열속에서 일하는 자기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는 그 인품에 끌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출선시간이 가까와오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새 삽을 드시고 용해공들과 함께 일하시였습니다.

다른 몇명의 남학생들도 대원수님의 뒤를 따라 용해공들의 일손을 도와나섰습니다.

얼마후 출선신호종이 울렸습니다. 용해공들은 쇠장대로 출선구를 뚫기 시작하였는데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출선구를 뚫는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일제놈들로부터 락후한 공장을 물려받다보니 오늘까지도 우리 로동계급은 힘겨운 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며 더없이 가슴아파하시였습니다.

한참후에 출선구가 열리였습니다. 로안에서 끓던 쇠물이 세찬

열을 뿜으며 용솟음치듯 쏟아져나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저 쇠물빛도 그속에 **김일성**대원수님께 바치는 우리 용해공들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기때문에 저처럼 아름답고 황홀하게 빛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때 쇠물이 더욱더 세차게 솟구치며 흘러내려 벽에 엉켜붙기도 하고 쇠물길뚝우로 넘쳐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삽을 드시고 쇠물길가까이로 다가가시였습니다.

안내하던 일군도, 용해공들도 이 일만은 위험하기때문에 안된다고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용해공들은 하루도 아닌 일생동안을 로앞에서 불과 싸우며 쇠물을 뽑고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일손을 도우시였습니다.

얼마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박판압연직장으로 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압연공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박판압연직장에서는 시뻘겋게 가열된 육중한 쇠뭉치들이 압연공들의 손을 거쳐 이 압연기에서 저 압연기에로 옮겨지고있었는데 순간에 엿가락처럼 길게 뽑아져나오는가 하면 넙적한 판이 되여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너무도 신기하여《야! 야!》하고 감탄하면서 저마다 더 잘 보겠다고 앞으로 나서며 법석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감탄만 하여서는 안된다고하시며 지금 저 압연공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가를 좀 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제서야 학생들은 모두 조용히 자리를 정돈하며 자세를 바로 하였습니다.

압연공들도 용해공들 못지 않게 힘겨운 로동을 하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압연작업을 순수 사람의 힘으로만 하고있으니 보는 사람도 바쁘다고, 실지 고열과 싸우

면서 일하고있는 저 압연공들이야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은 **김정일**대원수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는 생각으로 압연공들이 10～15분간 일하고 30분간씩 쉬기때문에 일없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그러자 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사 휴식을 오래한다고 하여도 그 고된 로동이야 어데 가겠는가고 하시며 문제는 힘든 로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하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압연한 박판을 끌고 지나가는 로동자의 모습을 보시고서도 저런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기계화할수 있지 않는가고 손수 쇠꼬챙이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보이시며 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일군은 당면한 생산계획만 생각하면서 작업을 기계화하지 못한 자기들의 무책임성을 가슴아프게 뉘우쳤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아직도 우리의 로동계급은 여러 부문에서 많은 땀을 흘리며 힘들게 일하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형편에서 기계화를 한꺼번에 다 할수는 없지만 간단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것을 기계화하며 앞으로는 온 공장을 자동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옷자락이 젖어드는것도 생각지 않으시고 매 직장을 빠짐없이 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제철소 일군에게 오늘 황철로동계급의 투쟁모습에서 크나큰 고무를 받았다고, 다만 한가지 가슴아픈것은 우리 로동자들이 아직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을 보고 떠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용해장에 남기고 갑니다.》

오늘 이곳 로동계급은 용광로와 평로들을 산업TV로 감시하고 설비들을 원격조종하며 무선통신으로 생산을 지휘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일찍부터 우리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시려고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인간사랑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였습니다.

평로 — 선철과 파철을 높은 온도의 가스불길로 녹여 강철을 생산하는 로.

제 16 과

몸소 참가하신 시험비행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중학시절부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는 사업에서는 모든것이 완전무결하도록 뜨거운 심혈을 기울이시였습니다.

주체48(1959)년 1월에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에 리용하실 비행기의 시험비행에 두차례나 참가하신 일도 있으시였습니다.

그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기 거의 열흘을 앞두고 몸소 시험비행에 참가하시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오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용항공국의 한 일군으로부터 시험비행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그럼 됐다고 하시며 비행기를 타보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시험비행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위험이 조성될수도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일군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앞을 막아나서며 시험비행에만은 참가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오랜 시간 타실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먼저 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지 않고서는 대원수님을 모실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비행기에 오르시여 비행기안을 둘러보시며 내부구

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이윽고 비행기가 리륙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비행기의 고도와 속도를 각이하게 바꾸도록 하시면서 제일 편안한 자리를 가늠하시기 위해 매 좌석들에 일일이 앉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수행원들에게 어느 자리가 편안할것 같은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수행원들은 비행기내부가 좁기때문에 어느 자리나 별반 차이가 없을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내부를 몇번이고 둘러보시더니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며 다시금 앞뒤좌석과 중간좌석에 가앉아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수행원들에게 **김일성**대원수님을 편안히 모실수 있게 비행기내부를 좀 개조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시험비행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비행장을 떠나시면서 민용항공국 일군에게 비행기내부를 다 고친 다음 다시 나와보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충실성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3～4일사이에 비행기내부를 개조하고 높은 수준에서 꾸리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외국방문을 떠나시기 전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비행장에 나오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비행기에 모실 준비를 잘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최종비행시험을 하게 된 비행기에 오르시여 비행기내부가 훌륭히 개조된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정하시였습니다.

비행기승조원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최종시험비행을 하

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최종시험비행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리시여 이제는 수령님을 모시여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시름놓고 잠들수 있을것 같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민용항공국 일군의 기쁨도 이를데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후 그 일군에게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을 떠나시기 전까지 비행기의 기술상태에 대하여 계속 검사해보고 점검을 반복해야 하겠다고 하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래일 수령님을 비행기에 모실 준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령님을 모시는 사업에서는 모든것이 완전무결하여야 합니다.

뜨거운 충실성이 담긴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은 일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렇듯 숭고한 충실성에 의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외국방문은 성과적으로 보장되게 되였습니다.

제 17 과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주체48(1959)년 1월 위대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쏘련(당시)을 방문하게 되시였습니다.

그 나라 수도에서 여러 문화기관들을 돌아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모스크바종합대학을 찾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참관과정에 그 나라 일군에게 앞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려는 자신의 결심을

밝히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을 안내해드리던 그 나라의 한 일군은 대학의 력사와 규모를 소개하고나서 대원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시면 꼭 이곳으로 류학을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외교적인 권고가 아니라 인류의 진보를 위해 천재를 아껴온 이 대학자체의 소망입니다.》

그의 권고는 진심이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권고를 거절하시면서 우리 나라에는 훌륭한 **김일성**종합대학이 있다고,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외의 이름있는 대학에 가야만 선진과학을 배울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던 때여서 그 나라의 일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 큰뜻을 마음속에 간직하고계신것은 벌써 오래전부터였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건설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해방직후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건설장을 찾으신 일이 있으시였습니다.

그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손목을 잡으시고 룡남산언덕에 오르시여 지난날 산에서 싸울 때 꿈처럼 그려보던 인민의 대학이 오늘 여기에 건설된다고 몹시 기뻐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드님께 어서 커서 이 대학에서 공부하여 대원수님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때의 어머님말씀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계시였습니다.

모스크바종합대학을 참관하신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려는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히

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어떻게 하면 더욱 빛내일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늘 생각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드는 길입니다.

이 나라 종합대학을 돌아보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려는 나의 결심은 더욱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김정일**대원수님의 상급학교진학문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류학과 결부시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직 이 땅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배워 그 빛발로 조국을 이끌어가실 크나큰 포부를 지니시고 해외에로가 아니라 룡남산으로 향할 결심을 밝히신것이였습니다.

> **룡 남 산**
>
> 평양시 대성구역 룡남동에 있는 산이다.
>
> 아름다운 명승지 모란봉의 북부에 잇닿아있다.
>
>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6(1947)년 9월 이곳에 오르시여 **김일성**종합대학 터전을 친히 잡아주시였다.
>
> 룡남산마루에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이 결심은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업을 보좌해드리시면서 우리 나라 현실에서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주인으로서의 준비를 갖추시려는 **김정일**대원수님의 확고한 주체적립장, 비범한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였습니다.

이 사실은 후날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알려져 조선의 참된 혁명가가 되려면 우리 나라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여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을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고급중학교 — 초급중학교와 대학사이에서 중등일반교육을 주던 교육기관. 주로 초급중학교를 마치고 입학하는 3년제중등학교였다. 〔초급중학교—(지난날에) 소학교를 마친 학생을 받아들여 중등일반교육을 주던 3년제중등교육기관.〕

보좌 — 웃사람의 사업을 도와드리는것.

제 18 과

검을 마사 보습으로 만들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제국주의와 평화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는것은 수정주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적들이 검은칼을 갈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붉은칼을 날카롭게 벼려야 하며 적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단호하게 혁명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지 몇해후부터 다른 사회주의나라에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나타나 혁명을 말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자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것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면서 자기들의 이런 나쁜 사상을 널리 퍼뜨리였습니다.

주체49(1960)년 3월 중순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과 다른 나라의 화보를 보시며 그것이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미술작품이라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화보에는 굉장히 키가 큰 사나이가 망치로 긴 칼을 꺾어버리는것을 형상한 조각상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조각밑에는 《검을 마사 보습을 만들자》라는 글이 씌여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미술작품을 보며 제나름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몇몇 학생들은 이 작품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나온 걸작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조각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사상을 주자는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학생에게 어째서 이 작품에 시대정신이 반영되였다고 보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학생은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고있는데 맞게 이 조각에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념원이 그대로 담겨져있는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이 작품의 주인공이 마스고있는 검은 어디에 쓰이는것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옆에 있던 한 학생이 검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며 적과 싸우는데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니 검을 마사버린다는것은 싸우지 말자는 뜻이 아닌가고 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듯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 없다고, 지구상에 미제와 같은 승냥이들이 남아있는데 검을 마슨다면 평화가 저절로 오겠는가고 하시면서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검을 마사 보습을 만들자》라는 조각상사진을 쳐드시고 이것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미술작품이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퍼뜨리고있는 반동리론과 그 해독성을 학생들에게 예리하게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였기때문에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도 독립을 《선사》받을수 있다고 떠벌이고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이자들이 땅크와 비행기까지 용광로에 넣는 영화와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있는 사실을 알려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는 한 검을 마사 보습을 만들수 없다고 하시면서 더우기 미제와 직접 총구를 맞대고있는 긴장한 정세하에서 혁명하는 우리들이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킨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검을 꺾을것이 아니라 검을 계속 틀어쥐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처럼 수정주의자들이 퍼뜨리는 궤변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학생들은 제국주의와 끝까지 투쟁할 확고한 립장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 — 착취와 략탈, 침략과 전쟁을 살아나가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는 마지막단계의 자본주의.

식민지 — 다른 나라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되여 지배를 받는 나라 또는 지역.

제 19 과

유자녀들을 훌륭히 키우시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나갈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이며 주체의 혁명전통계승의 믿음직한 기지입니다.》

주체49(1960)년 4월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던 **김정일**대원수님

께서는 이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습니다.

학생들의 휴식조직을 위하여 나와있던 한 일군이 **김정일**대원수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습니다.

그 일군과 함께 본관 앞계단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에게 만경대혁명학원에 모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모신 동상인것만큼 더 잘 모셔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상받침대에 새겨진 글발들을 읽으시며 글발이 눈부시게 빛나니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이렇게 빛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일군은 학생들이 아침마다 앞을 다투어 정성스레 닦는다고 대답올리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참 기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글발을 보시더니 언제 보아도 가슴이 뜨거워오는 글발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만경대혁명학원에 모셔진**
>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받침대에 새겨진 글발**
>
> 조선빨찌산의 영용을 세계에 떨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
>
> 장군님이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에 혁명자의 자제를 위한 만경대학원을 세워
>
> 장군님의 혁명정신을 계승하며 빛나는 이름 아로새겨 길이 전하노라.
>
> (一九四八년 十월 十二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우러르는 그 일군을 보시며 대원수님의 이 동상앞에 서면 어머님과 함께 학원준공식에 왔던 일이 언제나 눈앞에 선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가 해방된지도 벌써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조국은 통일되지 못하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만경대혁명학원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백두산에서 지펴올리신 혁명의 홰불을 높이 추켜들고 우리 혁명의 대를 억세게 이어나갈 골간부대, 핵심부대를 키우는 숭고한 사명을 지닌 학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일군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무겁고도 영예로운 책임감을 깊이 느끼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일군과 함께 층계의 첫 계단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유자녀들을 혁명의 핵심으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학원을 졸업한 유자녀들이 모두 일을 잘하는가고 물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원에서는 유자녀들을 졸업시킨 다음에도 그들의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며 영웅적으로 싸운 동무들의 자료들을 다 갖추어두어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학원형편과 교수교양의 내용, 일과조직, 학생들의 급식규정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원구내를 둘러보시며 **김일성**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로 학원에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만경대혁명학원은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선 모든 학생들을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어떤 역경속에서도 **김일성**대원수님을 옹호보위하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미일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은 우리의 피맺힌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얼마후 운동장에서 뛰놀던 학생들이 대렬을 지어 노래를 부르며 병실로 향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나이는 어려도 부모의 원쑤를 갚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에게 혁명의 불씨를 지펴 어린 복수자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사업은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나갈 혁명의 핵심들을 키우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인것만큼 힘들어도 학생들을 잘 돌봐주고 잘 키울데 대하여 거듭 당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렇듯 깊은 관심속에서 유자녀들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만을 믿고따르는 참다운 혁명가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유자녀－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가, 애국렬사들의 아들딸.

제 20 과

고급중학교를 졸업하시던 날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49(1960)년 7월 평양남산고급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시였습니다.

7월 15일 학교강당에서는 뜻깊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래학년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축하를 받으시며 졸업생들과 함께 졸업식에 참가하시였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제일먼저 고급중학교 졸업증서와 영예의 최우등상을 수여받으시였습니다.

이 영광의 시각 장내는 떠나갈듯 한 박수소리, 소고소리로 들끓고 꽃보라가 사방에서 흩날리였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교실로 걸음을 옮기시는 **김정일**대원수님께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이 진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올리였습니다.

그때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며 이날의 영예를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려주시였습니다.

교실에 이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증에 깃든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깊이 간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졸업증을 받고나니 이젠 끝났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졸업생들은 의아한 눈길로 **김정일**대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이 지금까지는 가정과 교정의 울타리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부터는 그 울타리에서 나와 사회라는 큰집으로 들어서게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졸업증서에는 보람찬 사회에로의 새로운 출발을 옳게 해야 한다는 조국의 당부가 어려있으며 일생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빛나게 살아야 한다는 인민의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이 졸업증서를 간직하고 충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가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졸업생들은 크나큰 감동에 젖어 졸업증에 깃든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고 혁명의 참된 일군으로 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이날 저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졸업생들의 모임을 가지시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앉은 차례로 모든 동무들이 독창을 하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자 학생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실가 하고 숨을 죽이고있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였습니다.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만가지 소원을 헤아려보시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주셨네
…

몸소 지으신 노래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10여년세월 어느 한시도 잊으신적 없으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운 정을 터뜨리시듯 더욱 절절하게 노래를 불러나가시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살뜰하고 귀중한 사랑을 영원히 못 잊어 부르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노래를 들으며 학생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노래를 마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천천히 창문가로 다가가시여 창문을 활짝 여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불밝은 당중앙창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시였습니다.

졸업생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느덧 밤은 깊어 자정이 가까와오고있었습니다.

이때 한 졸업생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김정일**대원수님께 앞으로의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될 가르치심을 주시면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몇가지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람차게 보낼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김일성**대원수님의 따사로운 품과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이 있기때문이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난날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당과 혁명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하겠다고 하시며 오늘 동무들에게 하고싶었던 말은 이것이라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속에서 맺어진 우리의 우정을 잊지 말자고 하시면서 한자한자 정성담아 쓰신 졸업축하장을 졸업생들에게 나누어주시였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동무들에게 동틀무렵이 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두 해마중을 가자고 하시였습니다.

졸업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써주신 졸업축하장을 귀중히

가슴에 품고 대원수님을 따라 모두 대동강가로 나갔습니다.

졸업생들의 미래를 축복하듯 동녘하늘에서 둥근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시며 《아침해돋이를 보니 마음이 상쾌해지고 심장이 커지는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졸업생들도 저마다 흥분된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저 찬란한 태양의 빛발은 마치도 **김일성**대원수님의 이끄심따라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앞날을 비쳐보이는것 같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리상과 행복은 해바라기가 그 어데 뿌리내려도 태양을 향하여 아지펴고 열매맺듯이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청춘을 빛내여나가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졸업생들은 뜻깊은 대동강의 해맞이를 영원히 잊지 않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졸업생들과 함께 보내신 졸업식의 하루는 그들에게 오직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받드는 길에서 청춘을 빛내일 굳은 마음을 다지게 한 의의깊은 하루였습니다.

제 21 과

아주 좋은 구호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일찌기 10대의 시절 한 땅크부대에 대한 현지지도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저 부대의 교양실에 들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실 준비사업을 보살펴주시면서 군인들이 근위땅크병들처럼 대원수님께 충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담화하실 장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앉으실 걸상을 흔들어도 보시고 거기에 앉아도 보시였습니다. 그리고 책상우를 손으로 쓸어보시고 마이크의 음량도 가늠해보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는 사업에 사소하게나마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그처럼 마음쓰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군인들은 가슴이 뜨거워올랐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군인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이 참 영예로운 일을 하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난날 **김일성**대원수님께 충성다한 근위땅크병들처럼 대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원수님께 충성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저를 드시기에 앞서 일군들에게 해방후 첫 땅크부대 지휘관이였던 한 항일투사선생님의 무한한 충실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가 모든 면에서 전군의 앞장에 서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이날 오후 한 일군과 함께 교양실 앞마당에 나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동안 군인회관 정문우를 바라보시였습니다.

거기에는《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고 쓴 큼직한 글발이 해빛에 빛나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구호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이 다 그런 사상적각오를 가지게 할데 대한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저 구호가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을 울리는 구호라고 교시하시였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저 구호는 인민군군인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그대로 담은 아주 좋은 구호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사실 그 구호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인민군대안의 항일투사들처럼 **김일성**대원수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된 충신들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던 과정에 나온 구호였습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폭로분쇄된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직후였습니다.

그때 인민군대안의 한 항일투사선생님을 만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인민군대가 당의 수뇌부를 허물어버리려고 책동하고있는 현대수정주의자들과 반당종파분자들에 대한 대답으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사수할데 대한 구호를 내들었으면 합니다.》

김정일대원수님과 한마음한뜻이였던 그 투사선생님은 곧 자기 부대에《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내걸었으며 이 구호는 삽시에 인민군대안에 퍼졌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깊은 감동속에 잠겨있는 일군을 돌아보시며 모든 군인들이 다 그런 사상적각오를 굳게 가져야 한다고, 우리는 앞으로도 저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며 땅크부대의 일군들과 전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들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목숨으로 철저히 옹호보위하는 성스러운 위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근위 — 특출한 공훈을 세웠거나 생산성과를 올린 부대나 련합부대, 그밖의 일정한 단위들에 국가로부터 수여하는 영예로운 칭호.

제 22 과

조선아 너를 빛내리

주체49(1960)년 9월 1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였습니다.

이날 아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수한 차림으로 첫 등교를 하시였습니다.

대학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과학의 최고전당에 들어서니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가야 하겠다는 결의가 더욱 굳어진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학시절을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더 깊이 체득하며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준비를 갖추는 보람찬 시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시였습니다.

학부장선생님이 **김정일**대원수님께 한학급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소개해드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시절을 함께 보낼 동무들을 만나니 매우 반갑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반갑게 잡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김일성**종합대학이 걸어온 로정은 **김일성**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력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 배려를 한시도 잊지 말고 대학기간에 공부를 잘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잠시후 입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3층 교실에 올라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한사람 한사람 나이와 고향, 가정형편 등을 알아보시였습니다.

한 제대군인학생은 학습에서 꽤 따라가겠는지 걱정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리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동무들이 같은 심정을 터놓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두가 당과 조국앞

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며 시작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학습에 달라붙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군사복무에 충실했던것처럼 학습에서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에서 고무를 받은 학급동무들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결의들을 다지였습니다.

담화를 마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대학전경을 구경하자고 하시며 룡남산으로 향하시였습니다.

앞장에서 잡관목을 헤치시며 룡남산마루에 오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교사쪽을 바라보시였습니다.

멀리 대동강너머에서 떠오른 아침해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있는 대학 본청사의 모습을 한층 웅장하게 돋구어주었습니다.

이윽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룡남산에 올라와보니 대학 본청사가 더욱 웅장해보인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룡남산은 참으로 유서깊은 곳이라고 하시며 해방후 대학건설이 한창이던 때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어머님과 함께 이곳에 오시였던 뜻깊은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못잊을 그날의 추억을 더듬으시며 오늘 이렇게 대학에 와서 동무들과 함께 룡남산에 오르니 그때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이 귀전에 울려오는것 같다고 갈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지으신 시

(대학입학전시기까지)

동 요 《공화국기발》
동 요 《연아 연아 올라라》
가 요 《조국의 품》
동 시 《초상화》
동 시 《우리의 수령》
가 요 《축복의 노래》
동 요 《나의 동생》
동 시 《우리 교실》
동 시 《한초가 한시간 되여줄수 없을가》
시 《우정에 대한 생각》
가 요 《나의 어머니》
즉흥시 《대동강의 해맞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계속하여 자신께서는 지방현지지도를 하고계시는 **김일성**대원수님께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에 등교하겠다는것을 말씀올리고 앞으로 대학에서 많은것을 배워 조선혁명의 주인이 되겠다는 맹세를 다지였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어머님의 말씀을 기어이 지켜나갈 굳센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여 수령님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것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우리의 숭고한 의무입니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자, 이것은 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은 룡남산마루에 쩌렁쩌렁 울리였습니다.

학생들은 참으로 위대한분이시라는 생각으로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 무서울것이 없을것만 같았습니다.

흥분과 감격에 휩싸여있는 학생들을 잠시 바라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과 어머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유서깊은 룡남산마루에 서니 시가 저절로 나올것 같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깊은 사색에 잠겨 조용히 거니시다가 눈길을 드시며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하시였습니다.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

이 시가 바로 천출위인의 명작으로 온 세상에 이름떨친 《조선아 너를 빛내리》였습니다.

위대한 뜻이 담겨진 구절구절에 저도모르게 끌리였던 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마지막 시구절을 읊으시자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성을 올리였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이 훌륭한 시에 곡을 붙여 노래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학생들에게 자신께서는 다만 늘 가슴속깊이 간직하여오던 심정을 오늘 이 산정에서 터놓았을뿐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을 세계에 떨치며 영원히 빛내이는것은 우리모두의 가장 성스럽고 영예로운 과업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대학기간에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하여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굳건히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시에 담겨진 사상을 그대로 해설해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노래로 지어부르면 좋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회를 보아 곡을 붙여보도록 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룡남산마루에서 읊으신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실 **김정일**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의 선포였으며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신 엄숙한 맹세였습니다.

이 맹세의 날로부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과학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한편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좌하시면서 혁명의 령도자로 준비해가시였습니다.

제 23 과

민청사업의 중심을 밝혀주시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시기 대학생들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충직한 주체형의 청년혁명가들로 억세게 키우며 청년조직을 보다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청년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대학에 입학하신 초기 청년사업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똑바로 서있지 못한데로부터 적지 않은 민청일군들이 사업을 활기있게 내밀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주체49(1960)년 9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청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새로 선거된 학생민청초급일군들을 만나시였습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부도 하고 민청사업도 하느라고 몹시 바쁘겠다고 하시며 애로되거나 곤난한 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죄다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소탈하신 인품에 한 초급일군이 어려움도 잊고 민청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씀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나시여 미소를 지으시며 이제부터 배우면서 해나가면 된다고, 자신께서도 도와주겠다고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시원한 바람도 쏘일겸 밖에 나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누자고 하시며 청사앞 휴식터로 향하시였습니다.

휴식터에 이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청사업을 잘하려면 청년운동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가져야 한다고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청년운동을 옳게 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전도,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고 가르쳐주시

였습니다.

초급일군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며 방금전까지 새로 민청사업을 맡은것을 그 어떤 부담처럼 여긴 자기들을 뉘우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대학민청조직들은 청년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수 없으며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사업을 잘하여 민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민청일군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청년일군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민청초급단체사업을 패기있게 내밀어보리라 새롭게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후 민청초급일군들이 사업에서 중심을 옳게 살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 다음해 2월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민청초급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사업토의를 하고있었습니다.

이때 방안에 들어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청사업을 토의하는중이라는것을 아시게 되자 마침 잘되였다고 하시며 함께 토의해보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가방에서 한장의 문건을 꺼내시였습니다. 며칠전에 그들이 드렸던 민청초급단체의 《2월중 사업계획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획서를 책상우에 놓으시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 계획서를 친히 보아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초급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의 말씀에 감격과 흥분으로 어쩔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계획서를 보시며 중심이 뚜렷하지 못하고 민청조직의 특성에 맞

게 세우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민청단체들은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기본을 두고 사업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생각에는 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관철사업을 틀어쥐고나가면서 동맹원들이 학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모를 박아야 할것 같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보자고 하시며 손수 만년필을 드시고 계획서에 한자한자 적어넣기도 하시면서 밤을 보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 민청초급단체일군들은 당면한 실무적사업에만 몰두하던 지난 시기의 사업방법에서 벗어나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청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자신의 모범으로 사람과의 사업방법을 배워주시였습니다.

당시 초급단체에는 예술활동에만 취미를 두고 기본혁명과업인 학습에는 낯을 적게 돌리는 한 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초급일군들은 그를 불러다가 불성실한 학습태도에 대하여 충고도 주고 회의에서 강한 비판도 하였으나 그는 좀처럼 비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초급일군들을 부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상의 성격과 준비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욕설이나 비판만으로 사람을 교양개조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문제는 그 동무의 심장을 움직여 그가 자각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그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 민청원의 생활

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으며 그의 뒤떨어진 학습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여러모로 마음쓰시였습니다.

또 어느날에는 그와 오래동안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께서는 부모없이 자라난 동무를 볼 때마다 만일 동무가 남반부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하고 자주 생각하군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행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기의 처지를 절대로 잊지 말고 **김일성**대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그 길은 학습을 잘해서 쓸모있는 민족간부가 되는 길이라고 타일러주시였습니다.

민청초급일군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러한 사업방법에서 사람과의 사업, 청년군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면서 자신들을 혁명적으로 수양해나갔으며 그 과정에 민청초급단체를 전국적인 모범초급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청년사업의 중심과업을 밝혀주시고 청년군중과의 사업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적극 이끌어주심으로써 민청사업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제 24 과

한 제대군인학생의 학습을 도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제대군인학생들이 당과 국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깊이 자각하고 대학시절에도 병사시절처럼 당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49(1960)년 10월초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제대군인학생의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그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습니다.

이날 제대군인학생을 만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건강은 어떠하며 대학공부를 하는데 곤난한것이 없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살아온 그는 대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에 마음이 저절로 풀어져 대학에 들어와 공부하기가 힘들어 고민하던 일과 건설장에 나가 일할 생각까지 했던 일들을 모두 말씀올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여 대학에서 나가려고 한것은 잘못되였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이어 공부하는 사람이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노력하면 모르던 문제도 알게 될것이며 그와 반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모를것이 많아지는 법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문제는 배우는 사람의 립장과 태도가 중요한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은 조용하였으나 그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였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갈팡질팡해온 자신의 소행이 부끄러워 머리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에서 학과학습에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는 대학도 군사복무때와 같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학습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잠도 적게 자고 애도 많이 쓰느라고 하였지만 학업성적은 좀처럼 빨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학습장도 몸소 보아주시고 학습에 대한 개별지도도 해주시였습니다.

어느날 오전강의가 방금 끝났을 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여 오전에 강의받은 어느 한 과목의 학습장을 좀 보자고 하시였습니다.

순간 그 학생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학습장에는 미처 받아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용을 틀리게 쓴 부분도 있고 알아보기 힘들게 글을 흘려쓴 곳도 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는 학습장을 선뜻 드리지 못하고 망설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일없다고 하시면서 학습장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한번 더 보겠다고 하시며 가지고가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날 학습장을 돌려주시기에 앞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강의를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교원이 강의할 때 기계적으로 받아쓰지만 말고 강의내용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깊이 사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강의내용을 옳게 리해하고 자기의것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학습장을 펼쳐보던 제대군인학생은 더욱 크나큰 감동을 받게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첫페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아주시면서 씨원씨원한 글씨로 강의내용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정리해주시였던것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에는 밑줄까지 그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습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제대군인학생에게 자신께서 보시던 참고서까지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동무가 공부를 잘하여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다면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이토록 세심한 지도와 은정에 의하여 그는 학습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되였으며 최우등생대렬에 들어서서 대학을 마치게 되였습니다.

제 25 과

만페지책읽기운동의 봉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대학에 입학하신 초기 대학생들속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대하는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리론을 기계적으로 본따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심각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주체49(1960)년 가을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생들의 학습계획서를 보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획서에서 대학생들의 그릇된 학습태도를 헤아려보시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도를 구상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보신 대학생들의 학습계획서에는 대부분 우리 나라 혁명에 필요한 책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책들과 고전을 읽을 계획이 반영되여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 고전을 읽는 문제도 예견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나라 혁명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처방이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은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에 있다고 하시며 다른 나라 고전이 아니라 대원수님의 로작을 기본으로 학습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학습계획서도 이런 방향에서 다시 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그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기숙사에 자주 찾아가시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학생들이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자면 학습관점을 바로세우는것과 함께 혁명사상학습을 조직화할수 있는 구체적방도를 똑똑히 세워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였습니다.

이런 결심밑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곧 학급의 초급일군들을 부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과 당정책학습을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일반적호소나 하는것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기때문에 목표를 똑똑히 세우고 조직적으로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그후부터 초급일군들은 강의가 끝나면 매일과 같이 모여앉아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할 토론을 거듭하였습니다.

하루에 몇시간씩 집체적으로 로작학습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학습경쟁을 조직하여 도표를 올리는 방법으로 학습의욕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가지고서는 학습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없다는 생각으로 토론을 매듭짓지 못하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50(1961)년 3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러개의 지함들을 싣고 기숙사에 나오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김일성**선집》, 혁명전통교양자료들과 당정책해설도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갈피갈피에 그어진 표식들로 보아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던 책들이라는것이 환히 알렸습니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초급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만페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동안의 토론내용을 들으시고 자신의 생각에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을 기본으로 하여 1년에 책 만페지씩 읽을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책읽기운동을 본때있게 벌리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1년이 365일이지만 좀 여유를 두어 300일로 잡고 하루에 30페지 좀 남짓하게 책을 읽는다면 1년에 만페지를 넉넉히

읽을수 있다고 설명해주시였습니다.

학생들은 흥분된 심정으로 한결같이 만페지책읽기운동을 벌리면 자기들의 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것이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동무들이 다 좋다니 됐다고 하시면서 그럼 한해에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을 기본으로 하여 책 만페지 읽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보자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만페지책읽기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학습하기 위한 충성의 운동이며 여러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읽기 위한 운동입니다.

만페지책읽기운동은 학습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모든 학생들이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공분야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한 혁명인재로 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페지책읽기운동의 본질과 목적을 뚜렷이 밝혀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읽어야 할 책들과 그 방법, 이 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펴주신 만페지책읽기운동의 봉화는 학생들의 심장을 세차게 틀어잡았으며 그들의 학습에서 전에 없던 변화들을 일으켜나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운동이 편향없이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습니다.

만페지책읽기운동이 갓 시작된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학습정형을 료해하시다가 중요한 결함을 찾게 되시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을 학습하면서 로작원문에 기초할 대신 로작의 내용을 해설한 해설서를 발취하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흥미있는 책들로 페지수나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학습

에서는 원문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작의 구절구절에 담긴 사상을 깊이 새기며 그 진수를 깊이 파악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만페지책읽기운동의 요구는 바로 이런것이라고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만페지책읽기운동은 새로운 높이에서 진행되였습니다.

학생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의 로작을 철저히 원문에 기초하여 깊이 파고들어 학습하였으며 도서관에 가서도, 식당과 회관에서도 짬시간을 리용하여 모두가 대원수님의 로작을 학습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이였습니다.

한 학급에서 시작된 만페지책읽기운동은 마침내 학부로, 전대학으로 퍼져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만페지책읽기운동의 불길은 날을 따라 더욱더 확대되여 학생들의 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전 —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력사적의의가 큰 로작.

진수 — 어떤 사상이나 리론 및 그밖의 사물현상의 알맹이를 이루는 가장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내용.

제 26 과

26호선반에 깃든 이야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주체50(1961)년부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인 그해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방직기계제작소(오늘의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생산실습의 나날을 보내시였습니다.

생산실습기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26호선반을 맡아 돌리시면서 기대관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그때 26호선반은 기대에 흠집이 많은데다가 부속품들도 적지 않게 못쓰게 되여 기계가 자기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알아보시니 그 선반은 공장에 들여온지 5년밖에 안되는 기계였습니다. 기대관리를 잘하지 못하다보니 그 좋은 설비가 때이르게 낡아버린것이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기대들도 형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26호선반 담당기대공에게 설비가 불비하면 생산을 제대로 보장할수 없는것은 정한 리치이겠는데 우리 함께 이 선반을 새 기대처럼 만들어보지 않겠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기대공은 대답대신 가볍게 한숨을 쉬였습니다. 그처럼 낡은 선반을 어떻게 새 기대처럼 만들수 있겠는가 하는 표정이였습니다.

기대공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팔을 다정히 잡으시고 마음이 불타면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함께 26호선반에 뜨거운 사랑을 쏟아붓자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다음날부터 작업반원들은 매일매일 26호선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것을 느끼였습니다. 처음에는 홈과 구멍들에 끼였던 해묵은 때들이 말끔히 가셔졌고 다음에는 기대에 가느다랗게 건너간 실금들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데군데 도색이 벗겨져 얼럭덜럭했던 자리들에 색칠까지 곱게 하시였습니다.

선반은 새 기대처럼 되였습니다. 다만 모서리 같은데 깊이 패인 흠집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찌할수 없는것이였습니다.

달라진 기대를 보며 깊이 감동된 기대공은 이만하면 선반의 외

부는 더 손댈 곳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출근하여 작업장에 들어서던 기대공은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웃옷을 벗으시고 땀을 흘리시며 줄칼질을 하고계시였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대에 난 흠집을 없애시느라 줄칼질을 하시고는 손바닥으로 쓸어보시고 다시 줄칼질을 하시였습니다.

기대공은 험하게 된 **김정일**대원수님의 손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그에게 기대에 생긴 흠집은 기대를 다루는 주인의 마음에 티가 있는것과 같다고, 어머니조국을 받드는 기대공의 마음에는 한점의 티도 없어야 한다고, 기대를 사랑하는것은 곧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말씀에 기대공은 지난날 기대관리를 주인답게 하지 못한 자신을 뼈아프게 돌이켜보며 말없이 줄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겉모양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후 여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루시던 26호선반

가지 부속품들과 치차들도 구해다가 바꾸어넣어주시였습니다.

마침내 26호선반은 말그대로 원상복구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제야 되였다고 하시며 아무리 보아도 새 기계 같다고, 기대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면 이렇게 낡은 기대도 새 기계로 태여나는 법이라고 기뻐하시였습니다.

그후부터 기대공들속에서는 26호선반을 따라배워 모든 기대들을 새 기대처럼 만들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설비점검의 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습니다.

그날 기대공들은 이른아침부터 기대를 정비하느라고 모두가 바삐 돌아갔습니다.

남먼저 기대정비를 마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어린 기대공처녀의 기대앞으로 다가가시였습니다.

알른알른한 그의 기대를 만족스럽게 살펴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턱물개손잡이를 돌려보시며 이 손잡이가 왜 이렇게 뻣뻣한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기대공은 턱물개손잡이에 기름구멍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다가 축의 한 부분을 가리키시며 여기에는 틀림없이 기름구멍이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홈파는 끄챙이로 기름때를 조심히 긁기 시작하시였습니다.

기름때가 벗겨지자 작은 기름구멍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기름구멍을 3개나 더 찾아주시고나서 기계란 돌아가는 부분에 반드시 기름을 주게 되여있다, 기계정비도 이런 리치를 알아야 더 잘할수 있다고 말씀해주시였습니다.

몇해째 기대를 다루면서도 기름구멍이 몇인지도 알지 못하고있었던 기대공은 얼굴이 뜨거워올랐습니다.

새로 찾은 구멍에 손수 기름까지 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대공에게 손잡이를 돌려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손잡이는 잘 돌아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뻐하는 그에게 이 기계들은 전후 나라사정이 어려운 때 마련한 귀중한 설비들이라고 하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다른 기대공들도 혹 기계의 원리를 모르고 기대를 정비할수 있는데 동무가 한번 설비점검을 잘해서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발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동무들이 동무의 모범을 따르면 이 직장이 설비관리에서 혁신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은 기대공은 자기 기대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마침내 공장적으로 기대를 제일 알뜰히 거두는 기대공이 되였습니다.

나어린 기대공의 모범은 집단적인 모범기대창조운동에로 번져졌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루신 26호선반은 공장적으로 제일먼저 《모범기대》칭호를 수여받게 되였습니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은 지체없이 온 작업반과 공장에 일반화되였으며 공장의 설비관리사업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지도밑에 발단된 모범기대창조운동은 오늘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으로 심화발전되여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선반 — 공작기계의 한가지.

소재를 물려서 돌리고 날은 직선운동을 하면서 깎는다.

제 27 과

와산동-룡성사이 도로건설장에서

평양방직기계제작소에서 생산실습을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며칠후 또다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함께 와산동-룡성사이의 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시였습니다.

좁고 우불구불한 길을 넓게 곧추 펴서 포장을 하고 오수간선도 설치해야 하는 도로공사는 말그대로 힘겨운 전투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건설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여 그들을 새 기적창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공사초기 작업장은 청년들이 일하는 곳인데도 들끓는 분위기가 서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느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오후 한 소대의 초급일군에게 다음휴식시간에 작업장을 한바탕 들었다놓는 오락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참가밑에 진행된 오락회는 여간 흥미있지 않았습니다.

노래와 춤, 화술과 유희로 엮어진 오락회는 작업장을 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락회가 끝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대원들에게 우리들은 노래와 웃음속에서 홍겹게 휴식하였는데 이제부터 불타는 열의와 청춘의 열정을 공사에 바쳐 **김일성**대원수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릴 영광의 시각을 앞당겨나가자고 호소하시였습니다.

사기를 얻은 소대원들은 이날 마지막작업시간에 와와 소리치며 일손을 다그쳐 오전 반나절동안에 한것과 거의 맞먹는 작업능률을 내였습니다.

오락회와 같은 단순한 군중문화사업도 큰 은을 낸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튿날 아침 대대정치부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현장신문과 방송, 전투속보를 잘 리용하며 전투원들속에서 발현되는 모범적인 사실을 제때에 소개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대대정치부성원들은 정치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정치사업을 기동성있고 패기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에 속보나 몇장 써붙이는것으로 정치사업을 대치해온 정치부성원들의 눈을 크게 틔워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은 후 대대정치부성원들은 현장방송을 설치하였고 현장신문을 발간하였으며 매 단위들에 기동예술선동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공사장의 전투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건설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는 한편 어렵고 힘든 작업의 앞장에 서시여 그들을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속한 소대가 산중턱에서 파낸 흙을 수십m 밖의 진펄에 나르는 작업을 하게 되였을 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대적으로 힘이 제일 세다고 하는 한 학생과 짝을 무어 목고를 메시였습니다.

삽질을 하던 학생들이 좀 쉬였다 하시라며 목고를 교대해드리려고 하면 대원수님께서는 오히려 함께 목고를 하는 학생을 가리키시며 교대해주겠으면 이 동무를 교대해주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아침 첫 시간부터 종일 목고를 메신지 3일째 되던 날이였습니다.

작업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학생들이 달려가 목고채를 쥐고 저희끼리 짝을 뭇는 바람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혼자 남게 되시였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약속한 일이라는것을 느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수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문득 학생들에게 오늘부터 3인2목고를 해보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에 모두들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3명이 목고 2개를 메자는것이라고 하시며 그 방법을 실지동작으로 설명하시였습니다.

결국 4명이 할 일을 3명이 해내는것이였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것인가를 알게 된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작업능률은 올릴수 있겠지만 힘에 부치지 않겠는가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물론 힘들수는 있지만 겁먹을것이야 있는가고 하시며 먼저 선뜻 목고채를 메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청년들이 목고를 할 때는 그래도 목고채를 몇개씩 꺾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깨가 아프다고 갑삭하게 메고 달랑달랑 다닐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목고하다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없다고 롱담도 하시며 두 목고에 흙을 듬뿍하게 퍼담게 하시였습니다.

첫 시험목고를 메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점심시간이 되여서야 목고채를 내려놓으시며 3인2목고는 확실히 파악이 있다고, 자리를 바꾸어가면서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건설장 여기저기에서는 벌써 3인2목고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새 목고방법은 이렇게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도로건설장에서 처음으로 생겨나 작업능률을 훨씬 높이였습니다.

목고를 메고 앞장에서 달리시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깨가 뙤약볕에 타고 벌겋게 부어올랐으나 한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앞장에 서신것은 토량운반작업만이 아니였습니다.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속하신 소대는 공사지휘부로부터

작업과제가 달라졌으니 작업장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게 되였습니다.

달라진 작업과제란 물속에서 땅을 파내는 일이였습니다.

그 일이 힘들다는것을 안 소대지휘성원들은 그냥 하던 일을 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학생들도 그 의견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때에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릎이 넘는 오수에 제일먼저 들어서시여 삽질을 하시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난 학생들은 너도나도 물속에 뛰여들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작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제꼈다는 긍지와 함께 한때나마 힘든 일을 피하려 했던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공사 전기간 이런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신작칙은 열백마디의 선전보다 백배천배로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참으로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기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모든 일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하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신 의의깊은 나날이였습니다.

정치사업 — 사람과의 사업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여주어 그들이 자각적으로 발동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제 28 과

새로 내주신 림시건늠길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공사로 하여 주변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어느날 아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사장주변인민들이 건늠길이 없어져 불편을 겪는것을 보시였습니다.

그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사에 동원된 한 인민군전사의 불도젤가동상태를 보시려고 운전칸에 오르시였습니다.

운전사는 신바람이 나서 산더미같은 흙더미들을 밀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운전사를 부르시며 앞을 보라고 눈짓을 하시는것이였습니다. 공사장 한복판인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다리쪽으로 오가고있는것이 보였습니다.

원래 그곳에는 다리쪽으로 건너가는 건늠길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공사장 여기저기에 모래, 자갈무지들과 파헤친 웅뎅이들이 있고 또 여러가지 기계들이 작업을 하기때문에 한번 건너가자면 여간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에돌아다니는데 정 급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불편하지만 본래의 건늠길자리로 다니고있었던것입니다.

운전사는 오늘따라 여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불도젤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바쁜 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들가운데서 한 녀성이 류달리 눈에 띄였습니다. 한손에는 큰 보짐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어린 딸애의 손목을 잡고 건너가고있었는데 어린애를 이끌며 공사장의 험한 길을 걷자니 몹시 바쁜 모양이였습니다. 뒤따르던 사람들이 건너편 큰 길가에 가닿도록 그는 아직 중간쯤에서 어물거리고있었습니다.

한동안 그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운전사에게 기대를 좀 세우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아무래도 저 어린애를 건너편 큰길까지 건네다주고 와야 하겠다고 하시며 운전칸에서 급히 내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아주머니곁에 이르시여 어린애를 품에 꼭 안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아주머니더러 어서 건너가자고 하시며 앞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운전사는 도로공사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인민군군인들은 인민들앞에 무한히 겸손하고 그들의 리익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신 **김정일**대원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커다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돌아오시자 운전사는 자기들이 인민들의 생활상편의에 대하여 무관심한탓으로 그만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이시며 애기어머니와 오가는 사람들앞에서 얼굴뜨거워지는걸 겨우 참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잠시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사장을 둘러보시며 림시건늠길을 만들 자리를 정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우리가 이 도로확장공사를 하는것도 인민을 위하여 하는것인데 공사를 한다고 하여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인민들이 마음놓고 다닐수 있게 건늠길을 제꺽 만들어주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운전사는 뜨거움을 삼키며 불도젤에 뛰여올랐습니다.

그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대로 림시건늠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로 생겨난 림시건늠길을 보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시원하게 잘 밀었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할것입니다. 이젠 시름이 놓입니다.

그러시면서 환한 웃음을 지으신채 그 길을 걷고 또 걸어보시였습니다.

어느새 벌써 그 건늠길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활개치며 건너가고 건너오고있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인민을 제일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제 29 과

전기기관차 《붉은기1》호를 보아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시하시기 위하여 주체50(1961)년 9월에 당 제4차대회를 열기로 하시였습니다.

당대회가 열리게 된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들은 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습니다.

서평양철도공장(오늘의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습니다.

주체50(1961)년 8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로동계급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 공장을 찾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공장구내의 철길에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설비로 만들어낸 첫 전기기관차 《붉은기1》호를 보아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관차의 앞뒤를 살피기도 하시고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전기기관차를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전기기관차보다 못하지 않다고 만족해하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김정일**대원수님께 전기기관차의 부속이 18만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정밀한 부속이 18만개나 들어가는 전기기관차를 자체로 만든것은 기술혁명수행에서 또하나의 높은 고지를 점령한것으로 된다고, 우리 로동계급이 아주 장한 일을 하였다고, 우리 로동계급이 자력갱생하여 만든 전기기관차는 우리 인민의 큰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 력사적인 당 제4차대회에

선물하고 **김정일**대원수님으로부터 이렇듯 분에 넘치는 치하까지 받게 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은 감격으로 설레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으시였습니다.

우리는 전기기관차를 많이 만들어 철도를 전기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기기관차를 더 많이 생산하여 철도를 전기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붉은기1》호를 돌아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기기관차직장 제관작업장에 들리시여 제관작업을 기계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첫 시작이다보니 전기기관차생산에서 제기되고있는 제관작업의 대부분을 손로동으로 하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형타와 기구들을 써가며 망치로 철판들을 두드려 구부리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작업반장을 부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작업반장에게 전기기관차를 많이 만들기 위하여서는 제관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앞으로 생산공정을 점차 기계화, 자동화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생산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작업반장은 제관작업을 기계화하겠다고 힘있게 대답을 올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신 다음 전기기구작업장으로 향하시였습니다.

그때 전기기관차직장에는 여러가지 명칭을 단 돌격대들이 조직되여 생산을 다그치고있었는데 전기기구작업장 문어구에는 바로 그들의 투쟁성과를 소개하는 큼직한 속보가 나붙어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속보내용을 읽어보신 후 항일혁명투사들의 이름을 달아 돌격대를 무은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끝없는 충실성을 본받아 그들처럼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친히 돌격대이름까지 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피심과 세심한 지도는 당 제4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을 더욱더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붉은기》호전기기관차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제관 — 금속판을 자르고 구부리여 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건을 만드는것.

제 30 과
새로 꾸려진 영화필림보관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면서 영화문헌보관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당 제4차대회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시작한 주체50(1961)년 10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영화필림보관실을 꾸리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영화보급사를 찾으시였습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저 현재 리용하고있는 영화필림창고는 언제 꾸린것이며 영화필림들을 어떻게 나누어 보관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기록영화필림과 예술영화필림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록한 기록영화필림도 다른 기록영화필림과 함께 보관하겠습니다.》

《예, 함께 보관하고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필림창고가 비좁기때문에 그렇게 하고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습니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수록하였거나 대원수님께서 중요회의를 지도하시는 장면들을 수록한 기록영화들은 다 대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영화로서 대를 이어 전해야 할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런 영화들을 어떻게 다른 기록영화와 같이 보관할수 있겠는가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영화필림보관실을 새로 꾸리자고 결심하였는데 동무들의 생각은 어떤가고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모두 보관실을 새로 꾸리겠다고 결의해나섰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적극 도와줄테니 공사를 잘해보라고 고무해주시고나서 자재와 로력도 타산해보시고 보관실의 크기와 내부구조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영화필림보관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공사가 벌어졌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공사장에 나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화를 거시거나 일군들을 통해 공사진척정형을 알아보시면서 보관실건설을 적극 밀어주시였습니다.

그러던 주체51(1962)년 4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영화보급사업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해주시면서 필림보관실건설을 빨리 끝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먼저 기록영화보급정형을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지금 **김일성**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수록한 기록영화를 다른 기록영화와 같이 부르고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수록한 기록영화를 영화문헌이라고 불러야 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의견을 물으시였습니다.

일군들은 한사람같이 그렇게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대답올리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럼 이제부터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수록한 기록영화를 영화문헌이라고 부르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문헌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성으로 교양할뿐아니라 그것을 대를 이어 전함으로써 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길이 빛내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일군들에게 영화문헌보급사업을 잘하며 필림취급에서 최대의 정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지금 당장은 이미 시작한 필림보관실건설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필림보관실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은 더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수록한 영화문헌들을 잘 보관할수 있는 새로운 필림보관실이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린 필림보관실을 찾으시고 영화문헌을 잘 보관하고 다룰데 대한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벽이며 바닥, 필림을 얹어놓은 당반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수고하였다고 치하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영화문헌필림의 화면들이 어떤지 좀 보자고 하시였

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필림을 쳐드시고 깐깐히 훑어보시고나서 그만하면 화면이 괜찮다고 하시며 다른 퉁구리를 하나 또 펼쳐보시였습니다.

그러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필림에 흠집이 있다고 하시면서 보급사일군에게 그것을 넘겨주시며 필림의 한 부분을 가리키시였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니 정말 필림 한카트에 잘 알리지 않는 작은 흠집이 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이 모셔져있고 대원수님의 혁명력사가 수록되여있는 이 영화필림에 자그마한 흠집이 있는것도 가려보지 못하고 그대로 내돌린다는것은 영화보급일군들의 충성심에 그만큼 흠집이 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또 다른 영화문헌의 필림을 보시며 필림을 이은 부분의 록음상태를 검열해보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수십년, 수백년후에도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김일성**대원수님의 연설을 육성으로 들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따뜻이 말씀해주시였습니다.

시간이 퍼그나 지났으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떠나실 념을 하지 않으시고 영화필림을 보다 정중히 보관하고 다루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렇게 영화필림보관실을 새로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보관실이 늘 마음에 걸렸드랬는데 이젠 됐습니다.》

그러시고나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를 선전하고 후대들에게 전하며 빛내여나가는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는 높은 사명감을 자각하고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일뿐아니라 인류의 재보인 영화문헌들을 잘 보관하고 다루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떠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높은 뜻에 의하여 그후 영화문헌보급

과 보관취급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력사는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제 31 과

류학생들속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온 류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외국류학생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늘이며 우리 나라를 세계에 더욱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여도 대학에서는 류학생들과의 사업을 그들에게 강의나 해주고 학습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것으로 그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깊이 료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류학생들과의 사업을 능동적으로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주체50(1961)년 11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류학생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국류학생들은 앞으로 우리 나라와 그 나라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한몫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류학생들과 그 나라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여야 하며 한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류학생들의 사상동향과 성격과 취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맞게 그들과의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능숙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단순히 그들의 학습과 생활의 방조자로만 될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선전자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우리 일군들과 학생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류학생들과의 사업을 활기있게 진행해나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기간에 친히 류학생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의 사업을 진행하시였습니다.

어느날 류학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어느 한 나라 류학생들을 만나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담화를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돈 몇푼에 혁명적원칙을 저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어떤 조건에서도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해방일을 맞는 그 나라 류학생들의 기숙사를 또다시 찾아주시였습니다.

뜻밖에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자기 나라 명절을 맞게 된 류학생들은 감격과 환희에 휩싸였으며 한 학생은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

영명하고 친근하신 **김정일**동지
그이는
위대한 태양이 낳은
위대한 조선의 별

빛나라,
영원한 해와 더불어
빛나라,
찬란한 미래와 더불어
아, 만세
조선의 **김정일**동지 만세!

시랑송이 끝나자 류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한 박수로 **김정일**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피부색갈이 다른 외국의 벗들이 **김정일**대원수님께 처음으로 올린 송시였습니다.

다음해 양력설에도 류학생들의 기숙사를 찾아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해를 맞는 류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나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친근하고 소탈하신 인품에 이끌린 류학생들은 저마다 조선에서 보내는 자기들의 보람찬 생활에 대하여 말씀올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그들과 국제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제국주의에 대하여 그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한순간도 포기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였습니다.

류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르며 온갖 반혁명적사상에 물들지 않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듯 대학시기 류학생들속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여 그들을 참된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32 과
《우리는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미제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비렬하게도 놈들앞에 굴복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한걸음두걸음 양보하는 길로 나가고있을 때 반미교양에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주체51(1962)년 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신천박물관을 찾으시고 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곳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박물관의 매 호실들을 돌아보시였습니다.

1호실에는 100여년전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 미제의 죄행을 폭로하는 자료들과 전시품들이 있었습니다.

> 신천박물관은 황해남도 신천군 신천읍에 있다.
>
> **김일성**대원수님의 주체47(1958)년 3월 현지교시에 따라 1960년 6월 25일을 계기로 개관되였다.

침략선 《셔먼》호를 끌고 대동강을 따라 깊이 쳐들어온 자료, 과수원에 떨어진 한알의 사과를 주었다고 나어린 소년을 나무에 매놓고 청강수로 이마에《도적》이라고 새기는 미국선교사놈의 짐승같은 만행을 보여주는 그림…

이 땅우에 차고넘친 원한서린 사연들을 더듬어보시는듯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전시품들을 돌아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삼천리강토에 미제원쑤놈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놈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계속하여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제국주의가 멸망하는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2호실에는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제의 죄행을 폭로하는 여러가지 증거물들과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의 작전지도를 비롯한 갖가지 자료들을 살펴보시며 좋은 자료들이라고 하시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침략적죄행을 감추려고 발악하여도 이 증거물들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여지없이 까밝히고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자료들을 더 많이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고 다음호실에 이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전시된 미제의 신천대학살만행을 보여주는 각종 증거물들과 희생된 애국자들의 유물자료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였습니다. 전시물들을 보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눈가에는 서리발같은 분노의 빛이 비끼였습니다.

원쑤놈들은 우리 애국자들의 머리에 못을 박고 그들의 몸에 톱질을 하였습니다. 젖을 달라고 울어대는 어린이들의 머리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죽이고 어린애를 업은 어머니들과 늙은이들을 산채로 땅속에 파묻어죽였습니다.

신천의 거리와 마을들은 시체로 뒤덮였고 모든 강과 저수지들은 인민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졌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두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시며 미제원쑤놈들이 저지른 이 짐승같은 만행은 오래전부터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미국놈들만이 할수 있는짓이라고 격분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또 다음호실을 보시고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한동안 말씀을 못하시였습니다.

잠시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신천땅의 피의 교훈은 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바람에 날리는 눈가루를 맞으시며 애국자들의 묘를 돌아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비문의 글발들을 읽으시고나서 일군들에게 하루빨리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고 하시면서 이것이 애국자들의 념원을 풀어주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 준비시키자면 그들속에서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신천땅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교양하는데서 이 박물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떠나시기에 앞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신천박물관을 통한 계급교양을 잘할데 대하여 거듭 당부하시였습니다.

박물관일군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을 바래드리며 대원수님의 뜻을



신천박물관

받들어 박물관을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리라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신천박물관을 다녀오신 후 이해 3월 대학생들과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데 대한 담화를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저 신천일대를 비롯한 북반부 여러 지역에서 감행한 미제살인귀들의 야수적만행에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미제에 대하여 자그마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제에 대한 환상을 가졌다가 놈들에게 무참히 희생되였습니다. 우리는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미제살인귀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며 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굳은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신천박물관에 꼭 가보며 신천박물관을 견학할 때 목격자들과의 상봉모임이나 복수모임 같은것을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학생청년들속에서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그를 반

대하여 투쟁하려는 계급적각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계급교양 —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며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

제 33 과

열병대오의 앞장에

주체51(1962)년 4월 2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지 3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였습니다.

이날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는 열병식을 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열병식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한대오에서 훈련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초기에 일부 학생들은 힘들다고 하여 대렬동작을 규정의 요구대로 하려 하지 않았으며 일부 제대군인들은 군대에서 열병행진을 해보았다는데로부터 훈련을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알아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만나시여 대렬동작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열병대렬을 제대로 맞출수 없다, 힘이 좀 들더라도 대렬동작을 규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대렬동작은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완성할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대렬동작이 잘되지 않아 지적을 받은적이 있는 한 학생이 오후 훈련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훈련장에 남먼저 나와 혼자서 행진련습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를 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열성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구령을 치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그가 대렬동작을 바로하도록 도와주시였습니다.

학생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돋는것을 보고 이제는 자기 혼자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동무가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것을 보니 힘이 솟는다고 하시면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다시 구령을 치시며 대렬동작을 반복하시였습니다.

뒤이어 훈련장으로 나오던 학생들도 **김정일**대원수님의 구령에 따라 대렬동작을 익히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그들에게 두번세번 모범동작을 보여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열병식에 나서자면 적어도 정보행진으로 광장의 한끝에서 한끝까지 가닿을수 있을만큼 대렬동작에 숙련하여야 한다고 말씀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든 종대들의 열병행진훈련을 보살피시면서 열병대오전반을 이끌어나가시였습니다.

4월 중순 어느날 훈련을 책임진 교원을 만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직 적지 않은 동무들이 행진할 때 대렬을 잘 맞추지 못하고 발도 높이 들지 못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훈련에서 요구성을 높이며 종대들사이에 경쟁을 조직하고 우수한 종대의 훈련경험을 본받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시려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온 열병대오가 훈련에서 구슬땀을 흘리였습니다.

처음에 오후에만 진행하던 열병훈련은 며칠후부터는 하루종일 계속되였습니다. 훈련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속에서는 난관앞에서 주저앉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을 조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훈련에 참가하면 대렬동작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잘할수 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긴 학생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면서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최종판정검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였습니다.

드디여 4월 25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열병대오의 앞장에서 행진해나가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시였습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장중한 선률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명절옷차림을 하고 손에 공화국기와 꽃묶음을 든 수십만의 수도시민들이 거리를 메우며 **김일성**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침 일찌기 남먼저 행사장에 나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열병식을 하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에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이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의 복장상태도 하나하나 살펴주시였습니다.

오전 9시 수백발의 축포가 오르는 가운데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습니다.

순간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뒤이어 장엄한 열병식이 시작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신 **김일성**종합대학종대는 열병대오의 앞장에서 주석단을 우러러 《만세!》를 높이 부르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손을 높이 드시여 뜨거운 답례를 보내주시였습니다.

대오의 앞에 서시여 **김일성**대원수님께 보고를 드리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며 항일투사들과 인민군장령들,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로동자, 농민대표들은 뜨거운것을

삼키고 또 삼키였습니다.

주석단을 지난 열병대오들은 시내의 큰길을 누비며 씩씩하게 행진해나갔습니다.

열병식에 참가하고 돌아온 학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손을 드시여 답례를 보내주실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감격에 목이 메여 겨우 만세를 불렀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열병행진은 참으로 뜻깊은것이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30년전 안투(안도)의 열병행진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갈것을 맹세다지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열병행진이였다면 오늘 **김일성**광장에서 있은 열병행진은 대원수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것을 맹세다지는 혁명의 계승자들의 열병행진이였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담긴 말씀을 들으며 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열병행진을 한 영예와 자랑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제 34 과

풀과 고기를 바꾸게 하시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평안북도 창성군을 산간지대의 본보기단위로 꾸려주시고 그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회의를 현지에서 준비하고계시던 때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보좌하시는 한편 대원수님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51(1962)년 7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의 견학대상의 하나인 삭주군 삭주읍농업협동조합(당시)을 찾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축산을 잘한다고 하기에 배우러 왔다고 하시면서 조합에서 축산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시였습니다.

조합에서 어떤 집짐승들을 기르고있는가를 물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합일군에게 조합의 목장에 가보자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목장으로 가시는 길에서 년간 축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산간지대 협동조합들에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대로 풀먹는 집짐승을 위주로 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목장의 집짐승마리수와 그 장성률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수많은 토끼를 기르고있는데 토끼사료를 어떻게 해결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목장일군은 토끼사료를 해결한 경험에 대하여 말씀올리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토끼생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토끼사료를 옳게 해결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읍조합에서 토끼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은것은 자연사료를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곡초를 적당히 배합하고 이를 옳게 가공하여 먹였기때문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삭주읍농업협동조합은 산을 낀 곳이기때문에 나

무가지사료원천이 많다고, 힘은 좀 들겠지만 마음만 먹고 노력하면 겨울철에도 나무가지사료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겨울철토끼생산에서 얻은 경험을 계속 공고히 하면서 그를 널리 일반화하며 여름철토끼사양관리를 토끼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할데 대하여서도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목장에 견학오는 사람들이 이 좋은 경험을 잘 배워가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조합일군들은 삼복의 무더위속에 오래동안 계시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틔워주시고도 오히려 자기들을 내세워주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은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올랐습니다.

이날 축사까지 다 돌아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풀과 고기를 바꾸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내놓은 구호라고 강조하시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특히 풀먹는 집짐승인 토끼, 양, 소, 게사니 같은것을 많이 키우며 털토끼를 많이 기르는것이 중요합니다.

한 조합일군이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축산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김정일**대원수님의 기대에 꼭 보답할 결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번에 와서 많은것을 배웠다고 거듭 고무해주신 다음 목장을 떠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풀먹는 집짐승들을 위주로 축산업을 한계단 추켜세우시려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는 현실로 꽃펴나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놀라운 전변이 이룩되였습니다.

제 35 과

평범한 병사가 되시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을 하자면 군사를 알아야 하고 군사를 알자면 병사생활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51(1962)년 8월 평양시 룡성구역 어은동군사야영지에 군사야영을 나가시였습니다.

군사야영지에 도착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정치부성원들에게 병사생활을 하려는 자신의 결심을 밝히시였습니다.

정치부성원들은 처음에 **김정일**대원수님께 훈련 전기간 야영소의 전반사업을 지도해주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믿어주는것은 고맙지만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번 군사야영은 병사생활을 체험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정치부성원들은 아무리 그래도 소대에서 생활하실수 없다고,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신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뜻이고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이번에 여기로 떠나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군사야영지에 나가 병사생활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나의 결심에 절대 찬성이라고 하시면서 군사를 알자면 병사생활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정치부성원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그 결심을 따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군사야영소에서는 훈련을 앞두고 대렬검열이 진행되였습니다. 그 대렬속에는 훈련복차림에 배낭을 메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서계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제1중대 제1소대 제1분대 대원이시였습니다.

이렇게 병사생활을 시작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는 야영이 끝나는 날까지 야영생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조금도 간격없이 똑같은 생활을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대정치부에서 누가 찾아와 잠간 자리를 뜨실 일이 생겨도 분대장에게 보고를 하시고 승인을 받고야 움직이시였습니다.

그럴 때면 분대장은 당황해하며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병사가 자기 위치를 떠날 때 분대장에게 보고하는것은 군사규정의 요구가 아닌가고 하시며 대원으로서 규정을 어길 권리가 없지 않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전체 야영생들에게 숭고한 모범으로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침식도 야영생들과 함께 하시였습니다.

그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야영소에 나오시자 대대장은 즉시에 비상협의회를 열고 대원수님께서 계실 방을 꾸리며 식사를 군관식당에서 성의껏 보장할데 대한 문제, 대원수님의 신변안전을 위한 경비조직을 할데 대한 문제들을 놓고 분공조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꾸리는 문제는 자기가 직접 맡았습니다.

그러나 대대장은 분공을 수행할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속에서 생활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독방에서 생활하시기를 거절하시였습니다.

소대원들과 한자리에 누우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동무들과 한잠자리에 누우니 얼마나 좋은가고, 참다운 동지들과 한지붕아래서 서로 정을 나누며 고락을 같이하는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자신의 기쁜 심정을 터놓으시였습니다.

소대원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한없이 친근한 인품에 어려움도 다 잊고 매일 잠자리를 펼 때면 저마다 대원수님곁에 누우려고 자리다툼을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침구류도 배낭에 지고나오신 모포를 그대로 덮으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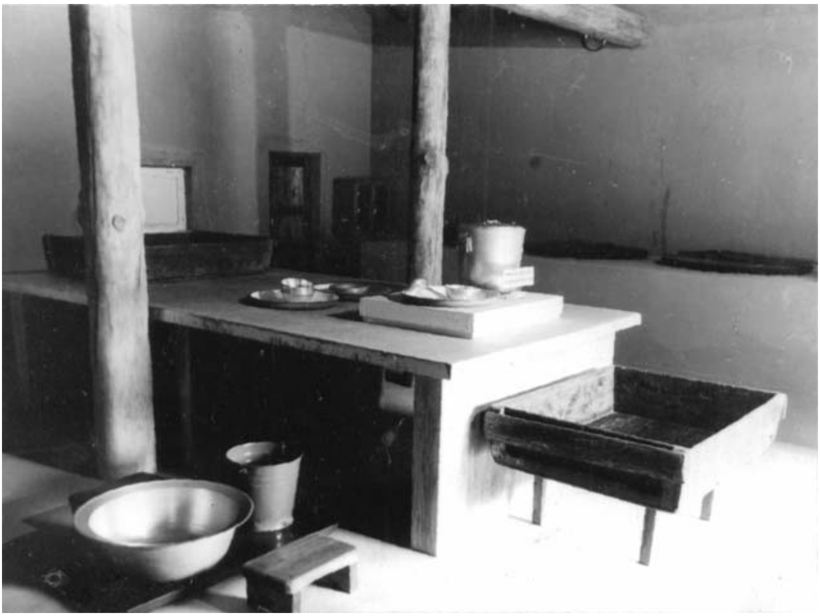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낮이면 찌는듯 한 더위에 화끈 달아오르고 밤이면 모기떼가 성화를 부리는데다 코고는 소리와 땀내가 가실새 없는 좁은 방에서 훈련의 휴식도 하시고 독서와 집필을 하시는 모습을 우러르며 대대장은 뜨거운것을 삼키였습니다.

분공을 수행하지 못한것은 대대장만이 아니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식사보장을 맡은 대대민청위원장은 대원수님께서 훈련에 참가하신 첫날 아침 소대식사대렬과 함께 오신 대원수님을 따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식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대렬을 따라 식당안으로 들어가시였습니다.

식탁에 마주앉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된장국이 구수하겠다고, 강낭밥에 된장국이 좋다고 하시며 수



취사장내부

저를 드시였습니다.

이때 민청위원장이 따로 준비해놓았던 식사를 가지고왔습니다. 따로 준비한것이라야 흰쌀밥과 산나물채, 두부지지개와 파볶음이였습니다.

그것을 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같이 조금씩 맛이라도 보자고 하시며 그것을 한식탁에 앉은 소대원들에게 고루 나누어주시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정치부성원들을 만나시여 자신의 식사를 따로 준비한데 대하여 엄하게 추궁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식생활을 검소하게 하고 인민들과 꼭같이 살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비상협의회에서 조직된 **김정일**대원수님의 병실에 보초를 세울데 대한 분공도 수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날 깊은 밤 대원수님께서 자신의 병실가까이에서 보초를 서는것을 발견하시고 즉시 철수하도록 하시였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대초급일군들을 만나시여 자신께서는 동무들의 믿음과 자신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더없이 귀중히 여길뿐 그 이상 다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지니시고 보초도 서시였고 몸소 식당근무에도 나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속하신 소대가 식당근무에 나가게 되였을 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식당근무에 나가 병사의 의무도 수행하고 취사장일도 배우려고 한다고 하시며 자진하여 식당근무에 나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뜨김이 서린 취사장안을 오가시며 근무성원들의 손이 미칠세라 궂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으시고 앞질러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새우며 아침식사준비를 하시였으며 식사계획

을 다양하게 짜시여 야영생들을 기쁘게 해주시였습니다.

참으로 병사로서 해야 할 모든 생활을 다 체험하신 **김정일**대원수님의 군사야영생활은 이 세상 그 어느 령장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병사생활이였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선군령도의 나날 누구보다도 병사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오늘은 대원수님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고계십니다.

제 36 과

대학생들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려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사야영의 나날 대학생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법들을 깊이 파악하며 여러가지 무기들을 능숙하게 다룰줄 아는 만능병사로 자라나도록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주체51(1962)년 9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야영생들과 함께 전술훈련을 진행하시면서 전투에서 방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날 휴식시간이 되자 야영생들은 **김정일**대원수님께 전투에서 주동에 서자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하지 않는가, 방어는 피동이 아닌가 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야영생들을 둘러보시며 전투에서는 공격이 기본이라고, 그렇다고 하여 공격만이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공격과 방어에 다같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직도 일부 동무들은 방어는 피동이기때문에 전투에서 주동에 서자면 공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동이란 말그대로 주인이 되여 움직인다는것이라고, 방어전투도 자기의 의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직진행한다면 그것은 주동이지 결코 피동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잠시 사이를 두시였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진행된 샤오왕칭(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1211고지전투를 실례로 드시였습니다.

이 두 전투들은 세계전쟁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치렬한 방어전투였다고 하시면서 방어라고 하여 꼭 피동에 서게 된다는 법은 없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전투에서의 주동과 피동은 전투형식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지휘관과 병사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여있고 적보다 우월한 전법을 능란하게 써나간다면 주동에 서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피동에 빠지게 된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야영생들은 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훈련에서 방어를 홀시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휴식시간이 끝나고 다시 훈련이 계속되였습니다.

교관은 적들이 퇴각한다는 새로운 정황을 소대에 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새 전호우에 뛰여올라 앞으로라는 구령을 내리신 다음 웅뎅이를 번개같이 뛰여넘기도 하시고 나무에 의지하여 끓어사격도 하시면서 《적》진을 향해 쏜살같이 달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용감무쌍한 모습에 고무된 야영생들은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더 잘 진행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사훈련의 나날 모든 야영생들이 원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지니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수의 가슴에서 원쑤에 대한 증오의 피가 끓고 눈에서 불이 일 때 탄알은 원쑤의 심장을 꿰뚫기마련입니다. 혁명의 무기를 잡은 병사들은 언제나 원쑤의 심장을 꿰뚫어야 합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뛰여난 사격술을 지니시고도 조준훈련을 하실 때면 여러가지 지형지물을 리용하시면서 훈련에 제일 열중하시였습니다. 어느날에는 비탈진 돌판에 엎디여 얼마나 직심스레 훈련하시였는지 팔굽이 벗겨져 피가 진것도 모르시였습니다.

소대원들은 그 모습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조준훈련에 진지하게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실탄사격을 앞두고 무기성능검사를 하고있는 사격장에 나오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격좌지도 돌아보시고 목표판까지의 거리도 가늠해보시였으며 무기성능도 료해하시였습니다.

이때 곁에 서있던 군사교원이 시험사격을 해주실것을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럼 어디 한번 쏴보자고 하시며 쾌히 청을 들어주시였습니다.

잠시후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10초 간격으로 불쑥불쑥 나타나는 목표물을 향하여 련이어 방아쇠를 당기시였습니다.

사격이 끝나자 나팔소리가 울렸습니다. 목표수는 붉은 기발을 4번 힘껏 쳐들었습니다. 4발 다 명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사교원에게 총알이 어디에 맞았는가를 알아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사교원으로부터 세발은 가슴복판에, 한발은 어깨와 가슴팍사이에 맞았다는 대답을 들으시자 한놈은 부상시킨셈이라고 하시면서 무척 서운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총알이 아무리 목표판중심환에 맞았다 해도 복판을 뚫지 못하면 원쑤의 심장을 맞혔다고 볼수 없고 따라서 그 총알은 명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아직 성능검사도 채 하지 못한 총을 가지고 그처럼 훌륭한 사격솜씨를 보여주시고도 만족을 모르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높은 요구성의 말씀에서 군사교원은 명중이라는 말의 참뜻을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실탄사격날이 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첫 사격을 하시였는데 모두 목표판의 중심을 꿰뚫으시였습니다.

야영생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김정일**대원수님께 명중의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청을 드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총탄 한발로 원쑤 한놈씩은 꼭 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목표판을 나무판대기로만 볼것이 아니라 미제침략자들의 흉물스러운 낯짝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타날 때 혁명의 이름으로 책임적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고, 백발백중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야영생들의 가슴은 커다란 감동과 새로운 결의로 뜨겁게 고동쳤습니다.

백발백중의 비결을 받아안은 야영생들은 이날 실탄사격에서 모두가 목표판을 영낙없이 맞히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대학생들은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할수 있었습니다.

전술훈련 — 지휘관들과 군인들에게 전투지휘와 행동조법 등 여러가지 전투전법을 숙련시키기 위하여 진행하는 훈련.

교관 — 교수직무를 가진 군관.

제 37 과

리현리를 찾으시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시절 농민들에게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며 농업생산을 추켜세우시기 위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사업을 보좌하시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주체51(1962)년 11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리현협동농장을 찾으시였습니다.

농장에 오시는 길로 탈곡장에 들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종합탈곡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기계가 벼단채로 탈곡할수 없는것이 결함이라고 부족점을 지적해주시면서 벼단채로 벼알을 털수 있도록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았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대담하게 달라붙어 자체로 종합탈곡기를 만들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리현협동농장이 앞장서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는 종합탈곡기에서 나오는 먼지를 눈여겨보시며 또다시 농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근심하시였습니다.

이때 한 일군이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먼지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바람때문에 그런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종합탈곡기에 먼지잡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에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습니다.

지난날 발로 기계를 돌리면서 벼를 털던 농민들은 이 종합탈곡기를 나무랄데없이 좋은 기계로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많지 않은 먼지에 농장원들의 건강이 나빠질가봐 이처럼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것이였습니다.

탈곡장을 나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농장농업과학지식보급실에도 들리시였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판과 표본병들을 한동안 살펴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농장원들이 과학지식보급실에 붙인 그림을 보고는 잘 알지 못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실물을 가지고 설명해주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겨울에는 과학지식보급실에 불을 뜨끈뜨끈하게 때고 농장원들에게 새로운 농사방법을 배워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농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의 기본내용

수리화 — 큰물과 가물의 피해로부터 토지와 농작물을 보호하며 농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는것.

전기화 — 모든 농촌과 농촌집들에 전기를 들여보내고 농사일을 전기화하며 문화적인 농촌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것.

기계화 — 밭갈이,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낟알털기 등 모든 작업들을 기계로 하는것.

화학화 — 토양을 개량하고 농작물이 빨리 자라게 하며 병해충을 없애도록 하여 수확고를 높이는것.

리현상점에 들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상점에서는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과일도 팔아주고 평양장도 떨구지 말고 가져다 팔아주어야 하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상점안을 겨울에는 춥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농촌문화주택들이 새로 줄지어 일떠선 마을에 들리시여서

는 살림집을 농장원들이 쓰고 사는데 편리하게 잘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과일나무를 심고 집울타리도 알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양지바른 곳에 아담하게 자리잡고있는 탁아소에도 들리시여 타일을 가쯘하게 붙이지 못한것과 같은 흔히 스쳐버릴수 있는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더 훌륭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마련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갔습니다.

차에 오르셨던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보시고 다시 내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옷차림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면서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조직생활도 잘할뿐아니라 예술소조활동도 체육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차에 오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농민들을 잘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일찍부터 대원수님께서 걸으시는 농촌길을 함께 걸으시며 농민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종합탈곡기 — 낟알을 털고 거두고 고르는 여러가지 일을 다할수 있게 된 농기계.

농업과학 — 농업생산의 발전과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에 관한 과학.

제 38 과

대덕산초소에서

1960년대에 이르러 미제의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는 매우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놈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시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였습니다.

주체52(1963)년 2월 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최전연에 위치한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였습니다.

초소근무를 서고 병실로 돌아오던 초병들은 뜻밖에도 자기들의 초소에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만나뵙게 되자 끝없는 감격을 안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달려오는 전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였습니다.

옆에 계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애젊은 병사에게로 다가가시여 외투깃에 앉은 눈을 털어주시며 몇살인가고 다정하게 물으시였습니다.

그 병사는 너무도 감격에 겨워 《18살…》 하고 채 말끝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의 나이를 되뇌이시더니 구분대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해방후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속에서 나서자란 젊은 세대들이 벌써 조국보위초소에 섰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월이 흘러 새로운 한 세대가 자랐지만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고, 새 세대들은 지난날 부모들이 그러했던것처럼 과녁을 똑바로 겨누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침대머리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병사들의 배낭을 한동안 살펴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배낭을 아주 간편하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위장망을 씌운 철갑모를 손수 들어보시고나서 지휘관들에게 전사들의 위장솜씨를 치하해주시였습니다.

잠시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갱도감시소에 들리시여 감시근무를 서고있는 전사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무들이 지켜선 초소가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일깨워주시며 전투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갱도감시소를 돌아보신 다음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야전감시소로 오르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루빨리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들고나가야 할 구호는 《일당백》이라고, 옛날부터 싸움 잘하는 장수를 일당백이라고 말하였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우리 인민군대앞에 《일당백》이라는 유명한 구호가 제시되였습니다.

《일당백》의 전투적구호를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에 휩싸인 한 지휘관은 **김정일**대원수님께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방어진지를 잘 꾸리고 훈련을 잘하면 고지방어전투에서 일당백은 문제없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당백》의 구호에 깃든 **김일성**대원수님의 깊은 의도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헤아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일당백》구호

의 본질을 똑똑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일당백구호의 본질적요구는 군인들이 방어에서뿐아니라 공격에서도 하나가 백을 당할수 있게 준비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일당백에 대한 내용을 방어에만 국한시켜 리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인민군대는 방어뿐아니라 공격에서도 일당백이 되여야 합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지휘관들은 자기들의 짧은 생각을 깊이 뉘우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지휘관들에게 우리 인민군대는 얼마든지 일당백의 혁명군대가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제국주의군대는 돈에 팔려 모인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인민군대는 고상한 목적을 지니고있는 혁명군대라고, 우리에게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된 일당백의 전통이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강의한 혁명정신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기묘한 전법, 튼튼한 체력을 가졌을 때 일당백이 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으로부터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구호의 본질과 구현방도를 명확히 받아안은 지휘관들은 모든 군인들을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일당백의 전투원들로 키워나가리라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초소의 전사들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초소의 전사들이 보고싶을 때 동무들의 얼굴이라도 보게 사진이라도 한장 찍자고 하시며 병사들을 가까이로 부르시였을 때였습니다.

구분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김일성**대원수님곁에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려 하였습니다.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을 기회가 다시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대원수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싶어하는 초소의 전사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세워 찍게 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자리를 잡지 못해 서성거리고있는 한 나어린 전사의 손을 따뜻이 이끄시여 **김일성**대원수님의 가까이에 세워주시였습니다.

그 전사가 너무도 고마와 어찌할바를 몰라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마음놓고 어서 찍으라고 다정히 말씀하시면서 그의 옷깃을 바로잡아주시였습니다.

전사들은 북받쳐오르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며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촬영이 끝나자 고지에는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떨어지기 아쉬워 발을 구르는 전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나서 고지를 내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날에 밝혀주신 《일당백》구호의 참뜻을 가슴깊이 새긴 인민군군인들은 전투훈련을 강화하여 미제원쑤들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강철의 군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게 되였습니다.

제 39 과

산간역에서의 밤을 지새우시며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52(1963)년 2월 인민군전사들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자신의 모든것을 다해 보장해드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였던 바로 그날 밤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무실 렬차침실의 온습도상태에도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면서 가장 적합한 침실조건을 마련해드리시였습니다.

그때 한 일군은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게 될 렬차에서 근무를 수행하면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밤이 퍽 깊어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먼저 일군이 있는 렬차칸으로 들어오시였습니다.

일군은 **김정일**대원수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에게 미소를 보내시며 곧바로 **김일성**대원수님의 침실로 들어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정히 포개여놓은 모포며 침실의 여기저기를 눈여겨보시다가 차창문틈을 따라 손을 대보시면서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는가를 확인해보시였습니다.

작은 틈이라도 있을세라 창가림을 꼼꼼히 여미여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뒤따라 들어선 일군에게 물으시였습니다.

《차칸이 되여서 그런것 같기도 한데 좀 답답한감이 나지 않습니까?》

일군은 바깥날씨가 매우 춥기때문에 방안의 온도가 높아야 하지 않을가 하고 생각하고있던지라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온습도계를 유심히 보시였습니다.

이어 손으로 방열기를 짚어보시며 온도는 이만하면 일없다고, 하지만 침실이 좀 건조한것 같은데 물을 떠다놓고 수건을 물에 적셔서 걸어놓는것이 좋겠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그 말씀에 얼른 온습도계앞으로 다가간 일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몇분전까지도 정상이던 습도수치가 아래로 떨어져있었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책감에 휩싸여있는 일군에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온습도계도 자주 살펴보면서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손수 세면장에 걸려있는 수건을 가져다주시였습니다.

일군은 후더워오르는 마음으로 수건을 물에 적시여 벽에 걸어놓았습니다.

잠시후 방안의 공기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때마침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침실로 들어오시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문건들을 보시며 무엇인가 글을 쓰기도 하시였습니다.

산간역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밤을 지새우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보장해드리시였습니다.

일군은 사색에 잠기신채 조용히 차안을 거니시는 **김정일**대원수님께 밤이 깊었는데 이제는 쉬실것을 말씀올리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일군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아직 주무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잘수 있겠습니까?》

그러시고나서 념려해주어 고맙다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무시기 전에는 잘수 없고 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였습니다.

새벽 3시경이 되여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잠에 드시였을 때였습니다.

밖에 나가시였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용히 일군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여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잠드셨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제 대덕산초소에 올라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고개를 걸어넘으시였고 밤늦도록 군인들의 공연까지 보아주시였으니 몹시 피로하실것이라고 걱정하시였습니다.

온습도상태를 다시 알아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침실문가에서 떠날념을 하지 않고 오래동안 서계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얼마동안이라도 쉬실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불편없이 잘 주무시면 나의 피곤도 풀립니다.》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 더 다른 말씀을 올릴수 없었습니다.

얼마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방을 나서시였습니다.

일군들은 이제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무실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침실로 들어가시지 않고 산골짜기에서 휘몰아쳐오는 눈보라를 맞으시며 수행원들과 함께 근무를 서시였습니다.

어느덧 기나긴 겨울밤이 끝나가는 동틀무렵이 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일군의 방에 오시여 이제 날이 밝으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아침 일찌기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겠는데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하겠다고 이르시면서 해야 할 일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위한 사업에서는 천가지중에 단 한가지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방을 나서신 다음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무슨 인기척소리가 난것 같았는데 누가 왔댔는가고 일군에게 물으시였습니다.

일군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보장해드리시려고 온밤을 지새우시며 마음을 쓰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신통히도 어머니를 닮았어. 꼭 닮았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렇듯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지지도의 길우에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충실성의 자욱이 끊임없이 수놓아졌습니다.

제 40 과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시려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시기 학생들속에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사상을 깊이 심어주는 사업과 그 관철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52(1963)년 4월 18일 당중앙위원회 부장회의에서 **김일성**종합대학사업에 대하여 토의하시고 대학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한 과업들을 밝혀주신 후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민청초급단체총회에 참석하시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여러 민청원들이 결의를 다지였으며 좋은 의견들이 제기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학습제일주의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결론을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결론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의 4월18일교

시를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학습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4월18일교시에서 학생들은 학습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신 교시를 관철하자면 민청원들이 모든 힘을 학습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에 대하여 대학일군들에게만 해당되는것으로 생각하면서 뚜렷한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학생들은 그때에야 대원수님의 교시관철에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와 그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계속하시여 학습제일주의구호를 관철하는데서 민청초급단체가 어떻게 사업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청초급단체가 민청원들에 대한 동맹생활지도도 학습을 잘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민청원들의 조직생활을 평가할 때에도 학습을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습니다.

민청원들과 민청초급일군들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아안으며 학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날의 회의는 대학생들이 학습제일주의로 나갈데 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그후 어느날 한 학급에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4월 18일에 하신 교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사상을 해설해주시였습니다.

이날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참가하였지만 교육에서 주체를 세

울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깊이있게 토론하지 못하였습니다.

토론시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사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토론회가 끝났으나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습니다.

그러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4월18일 교시에서 우리의 교육은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여야 하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교육에서의 주체라고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교육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 바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라고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기 나라의것만 배워주는것이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아니라는것과 다른 나라의것도 우리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것이라면 가르쳐주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학생들은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사상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대학시절의 하루하루는 대학생들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대원수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로 이끌어주신 나날이였습니다.

제 41 과

《조선의 과학자들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대학생들을 조선의 참된 과학자들로 키우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주체52(1963)년 6월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 학생을 만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와 함께 걸으시며 조선의 과학자들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먼저 그에게 물리학을 파고드니 신심이 생기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가 고급중학교때 물리, 수학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있던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였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학년이 높아지고 학문의 내용이 심화되면서 점차 신심을 잃고있던 그는 그날그날 학습과제나 수행하고있는 형편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과서와 학습장에만 매달려 시험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것으로 그친다면 대학생의 본분을 다할수 없으며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높은 과학적자질을 갖춘 민족간부로 자라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분발하지 않으면 빠른 시일안에 과학기술을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올려세울수 없다고 하시면서 청년시절에 무엇인가 큰것을 연구해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이에 어느덧 빠스정류소에 이른 그 학생은 대원수님을 모시고 빠스에 올랐습니다.

빠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학생과 함

께 걸으시며 동무는 남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과학탐구에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과학탐구에서 성공하려면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조선의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자연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잠시 말씀을 끊으셨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조국의 부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하려면 우리 나라의 자연과 우리 나라의 현실 특히 우리 당의 정책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해당 과학분야와 관련된 당정책을 잘 모르면 연구목표와 방향도 바로 정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요즘 학생들속에서 학습열의가 높아지는 반면에 정치생활을 홀시하는 편향이 부분적으로 생기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때 일부 자연과학학부 학생들속에서는 전공학습만 잘하면 된다고 하면서 정치학습과 조직생활에 무관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었습니다. 학생은 이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대학생들은 과학자가 되기 전에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당과 수령의 의도를 받들어 과학탐구의 길에 나서서 한생을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사람만이 참된 과학자로 될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그러한 사람은 기어이 자기의 포부와 리상을 꽃

피우고 조국앞에 빛나는 위훈을 세우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꼭 명심하고 이제 남은 대학기간에 학습과 생활을 잘하여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겠다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끊임없는 보살피심속에 보람찬 배움의 나날이 흐르던 그 다음해 1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에 리로운것이라면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였습니다.

그날 대학도서관의 구석진 곳에서 다른 나라 도서를 보고있던 그 학생은 **김정일**대원수님을 뵙게 되자 인사를 올린 후 보던 책을 황급히 덮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무슨 책이기에 그렇게 감추는가고, 자신께서 알면 안되는 책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리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 학자들이 쓴 책이라고 말씀올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런데 어째서 못보게 된 책을 몰래 훔쳐보는 사람처럼 그러는가고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 글로 된 책을 보는 학생들을 사대주의, 수정주의에 물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기술서적을 보는 경우 부득불 남의 눈을 피해가며 가만히 보군하였습니다.

그 학생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밖에 나가 이야기나 나누자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학습터의 나무걸상에

앉으신 다음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연구해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정력과 시간, 자재를 들이면서 자체로 연구하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리롭다면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며 다른 나라의 기계설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조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써도 좋은것을 쓸데없이 고칠 필요는 없다고 있을수 있는 편향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지나가던 학생들도 모여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고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우리 혁명을 잘하고 우리 인민이 잘살게 하는데 리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젠 똑똑히 알겠다고 새로운 결의를 안고 말씀올리는 그 학생을 보시며 그렇다니 한지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이야기한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즐겁게 웃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대학생들은 조선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새 세대 과학자들로 자라났습니다.

제 42 과

몸소 장맛까지 보아주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 제4차대회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의 하나로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뜻을 받드시고 언제 어디서나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주체52(1963)년 8월 어느날 량강도일대에 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풍산군(오늘의 김형권군) 풍산읍종합상점의 식료매대를 찾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매대에서 량강도의 특산물인 들쭉을 인민들의 식생활에 리용하고있는 정형과 된장의 질을 료해하시였습니다.

먼저 들쭉이 있는가고 물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판매원이 드리는 들쭉그릇을 받으시고 몸소 들쭉맛을 보시며 참 별맛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해마다 군적으로 들쭉을 얼마씩이나 따는가, 들쭉으로 만든 식료품은 몇가지나 되는가를 알아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판매원에게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들쭉을 많이 따서 날것으로도 먹고 말려서 정과도 만들며 즙을 내여 쨤과 시롭, 술도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라고 교시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된장매대쪽으로 가시여 된장, 간장은 떨구지 않고 공급하고있는가, 된장맛은 어떤가를 물으시며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대로 된장을 떠오게 하시였습니다.

된장을 받아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된장의 빛갈과 맛을 보

시고나서 된장의 질이 시원치 못하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장이 맛있어야 국이 구수하고 밥맛도 돋군다고 하시면서 이 장을 만드는 식료공장에 질을 높여달라고 제기해봤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상품을 받아서 팔면 자기 할 일을 다하는것으로 생각했던 판매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상업일군들은 상품을 파는데만 머리를 쓰지 말고 사가는 사람들의 립장에 서서 상품이 모자라거나 질이 낮은데 대해서 투쟁할줄도 알아야 한다고 부드럽게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고산지대에서 사는 인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어제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가슴이 아프신듯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된장을 반㎏쯤 하고 간장을 한병 주시오, 그리고 고추장과 양념장도 좀 주시오라고 하시였습니다.

판매원이 의아해하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풍산땅에 왔으니 풍산장맛을 봐야 할게 아닙니까. 념려말고 주시오.

순간 판매원은 가슴속깊이에서 솟구쳐오르는 뜨거운것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상점에 또다시 찾아오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판매원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동무네 상점에서 파는 된장을 맛보았는데 장맛이 시큼하더라고 하시면서 된장, 간장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천천히 매대를 돌아보시며 군내에 있는 자연원료는

어떤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몇가지 제품을 만들수 있는가 등 많은것을 물으시였습니다.

판매원이 미처 대답을 올리지 못할 때면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대원수님께 하나하나 대답을 드리군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군을 떠나시기에 앞서 또다시 군의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된장, 간장의 질을 개선할데 대하여 거듭 의논하시였습니다.

인민을 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끝없는 사랑에 의하여 풍산땅은 벌방부럽지 않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되였으며산간지대인민들의 식생활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제 43 과
봇나무껍질에 남기신 친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후대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학생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쓸모있는 혁명의 참된 후비대로 키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52(1963)년 8월 어느날 풍산중학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지도밑에 풍산지구 농업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사업을 보좌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풍산중학교를 돌아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풍산중학교 교육실태를 료해하시면서 학생들을 쓸모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먼저 학교의 물리, 화학, 생물실험실들을 돌아보시였습니다.

실험실들은 깨끗하게 정돈되여있었지만 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

제들이 많았습니다.

실험실들은 이 지방의 풍부한 자원을 리용하여 자연을 길들이고 리용할수 있는 지식을 줄수 있게 되여있지 못하였습니다. 개마고원일대의 흙을 분석한 자료도 없었고 산간지대에 많은 양과 토끼, 산천어, 취를 비롯한 동식물표본도 많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고장의 땅성질을 모르고 농사를 잘 지을수 없으며 자기 고장의 동식물을 알지 못하고 축산과 지방산업을 발전시킬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교일군에게 풍산지방의 토양분석자료들을 많이 진렬하여 학생들이 자기 고장의 땅성질을 잘 알도록 하며 고산지대의 동식물표본을 많이 갖추어 학생들에게 자기 지방의 자원에 대한 산지식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산간지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인재들을 나라에서 보내주겠거니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학교에서 준비시켜 내보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학교운동장과 뒤뜰까지 구석구석 돌아보시며 교원들이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였습니다.

키높이 자란 황철나무밑에 이르시여 밑둥에 난 도끼와 칼자리를 보시고 장난 세찬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정서에 맞게 체육기재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뒤뜰로 가시던 길에서는 벌거숭이가 된 학교뒤산을 보시고 저 산에는 왜 나무가 없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이 고장을 일시 강점한 미국놈들이 모조리 찍어다 불을 땠다는 대답을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신듯 안색을 흐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저 산을 그냥 내버리면 좋아할것은 원쑤놈들뿐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기때문에 저 산을 이전보다 더 푸르고 울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이깔나무를 심지 말고 풍산아이들이 그리워하는 사과나무를 심어 실습과원으로 만들라고 하시였습니다.

추운 이 지방에서 사과나무를 자래우기가 힘들다는것을 헤아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과나무를 추운 곳에서 키우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실습과원을 꾸리는것은 풍산아이들에게 제고장 사과를 먹이는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고, 고산지대를 벌방부럽지 않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는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아이들에게 주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백두산이 가까운 풍산땅, 혁명의 뜻이 어린 개마고원일대를 로동당시대의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담긴 말씀을 받아안으며 학교의 책임일군은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봇나무껍질에 교원들과 학생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글발을 남기시였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돌아보신데 이어 어느 한 방에 들어가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면서 종이처럼 얇은 봇나무껍질들을 책상우에 놓으시였습니다. 학교를 돌아보실 때 뒤뜨락의 화목더미에서 손수 벗기신것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은 학습장이 없어 나무껍질에 글을 쓰면서 공부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교원들과 학생들은 지나온 력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만년필을 뽑아드시고 잠

시 사색에 잠기시더니 봇나무껍질에 글을 쓰기 시작하시였습니다.

첫장에는 교원들은 학생들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귀중한 보배들이라는 글을 쓰시였습니다.

씨원씨원한 필체로 쓰신 그 글발을 읽는 학교책임일군의 눈앞에는 방금전에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한 교실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교실의 마루바닥이음짬이 약간 버그러진것을 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곳에 손바닥을 대여보시고 다시 손등을 대여보시며 이 짬으로 겨울에 찬바람이 올라와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수 있으니 짬을 메꾸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삼복더위가 계속되는 여름날에 벌써 이 고장의 눈발 사나운 겨울을 생각하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르며 학교의 책임일군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에 머리를 들수가 없었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두번째, 세번째 장들에도 교원들에게 주시는 글발들을 남기시였습니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쓰시였습니다.

《학생동무들! 동무들은 좋은 학습장에 글을 써도 종이가 없어 봇나무껍질에 글을 쓰면서 학습하던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정신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학생동무들! 동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으로 가게 됩니다. 동무들은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또 다음 장들에 배울래야 배울수 없었던 부모들의 지난날을 잊지 말고 배우고 또 배워 지덕체를 갖춘 사회

주의건설의 참된 후비대가 될데 대하여, 한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며 학교 뒤산에 과일나무를 심어 열매가 맺히도록 할데 대하여 쓰시였습니다.

참으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풍산중학교를 돌아보시고 7장의 봇나무껍질에 남기신 글발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이였습니다.

후대교육사업을 위하여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는 이르는 곳마다에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중학교 제1학년용)
제 3 판

집 필 홍정남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신호철

장 정 류명심 콤퓨터편성 리은경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8(2009)년 11월 9일

3판발행 주체100(2011)년 3월 29일

교-11-보-218 값 10 원